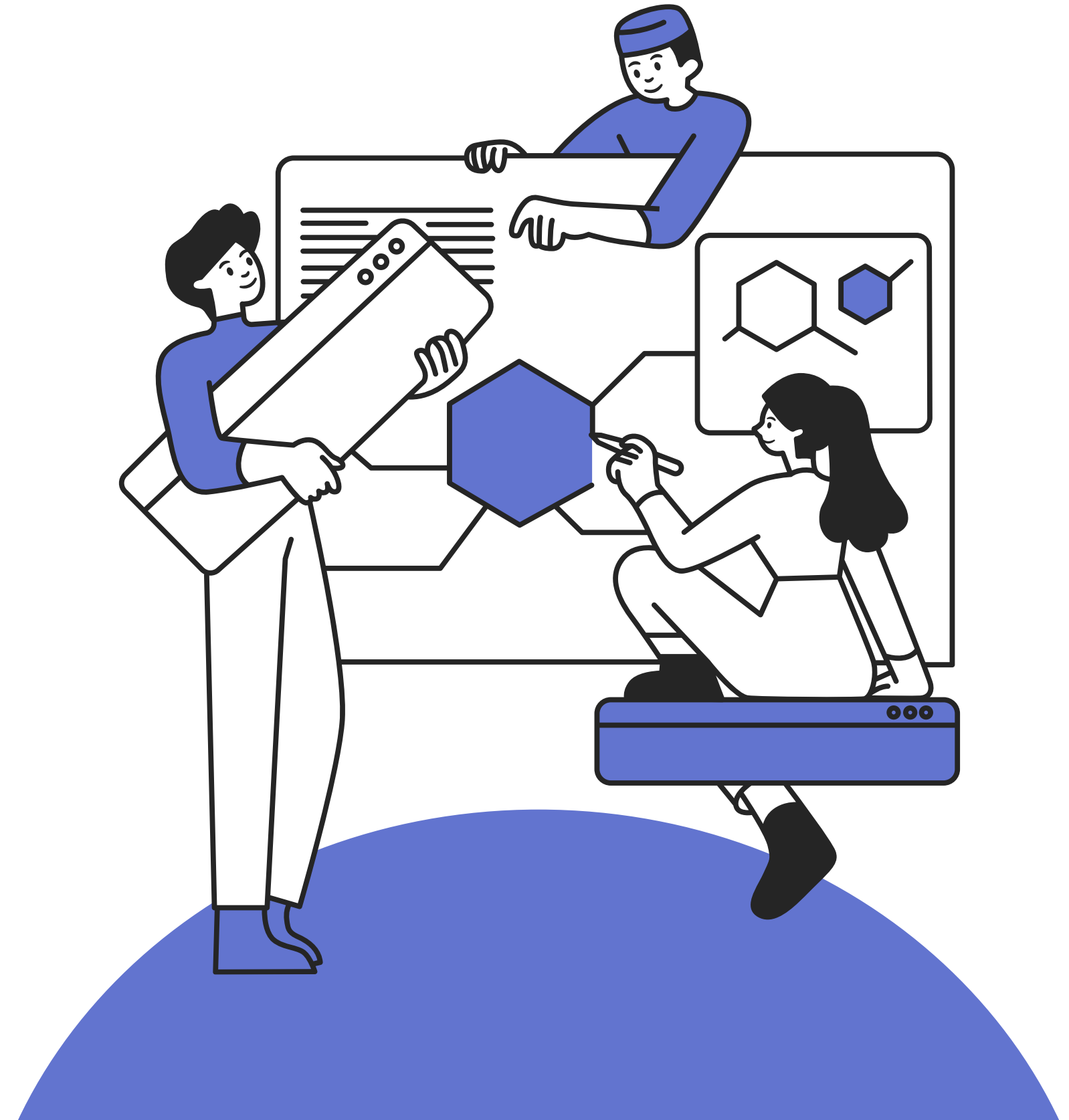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인지언어학의 핵심 개념들

2025년 4월 18일
정병철(경남대)

사용기반접근

(usage-based approach)



사용기반이론과 구문 문법

문법은 규칙이 아니라 의미와 형식이 결합된 구성물(construction)의 집합임을 가정
→ 아이들은 문장을 구성할 때 개별 단어나 규칙이 아닌 상황과 연결된 완전한 표현 단위를 습득

사용 기반 학습

언어 습득은 자연스럽게 반복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이루어짐
입력(input)의 양과 질이 학습의 핵심 요인

빈도 효과

자주 노출된 구성은 더 쉽게 학습되고, 더 빨리 일반화된다.
문법도 결국은 자주 쓰이는 구성물의 추상화된 형태로 이해됨

점진적 추상화

처음에는 고정된 표현으로 시작 → 반복을 통해 패턴 인식 및 일반화
예) I want milk → I want toy → I want to go → [I want ____]

시사점

구문문법은 언어 습득의 인지적·경험적 토대를 설명하는 강력한 틀
인간은 생득적인 원리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일반화

일반화와 도식화

인간만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언어 능력으로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곧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200만종의 동물들 중에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습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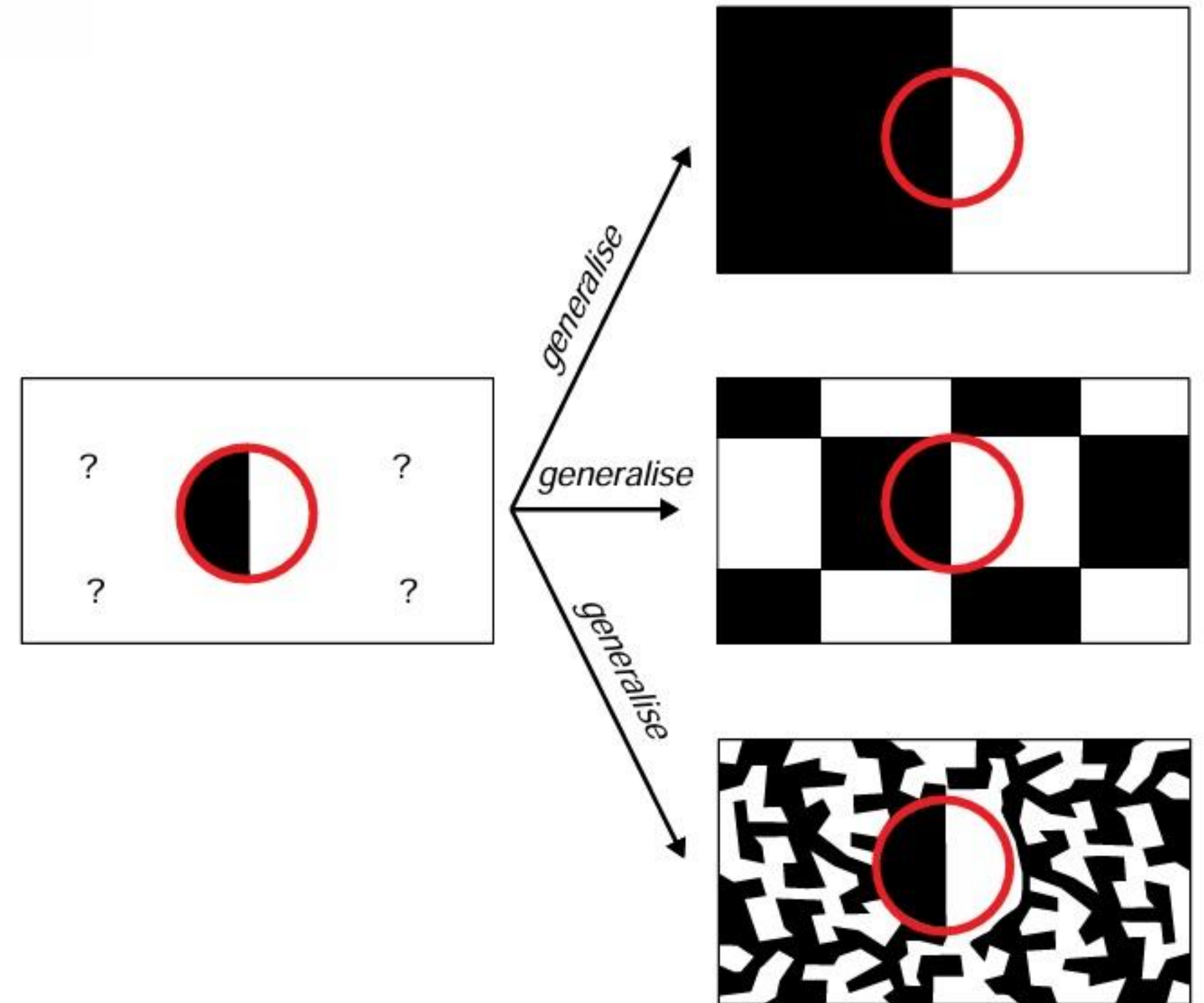
일반화 (gener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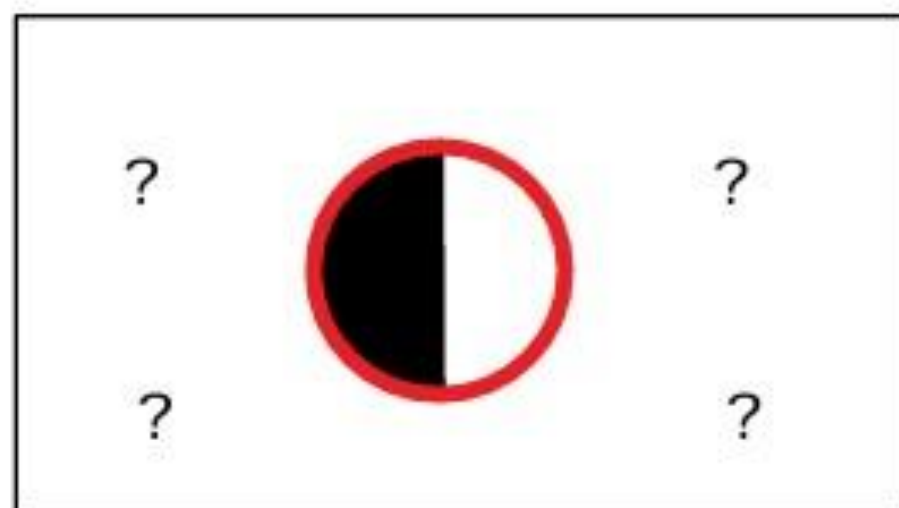
가정과 실험

만약 당신이 어린 아기이고 그림에 있는 빨간색 원을 통해서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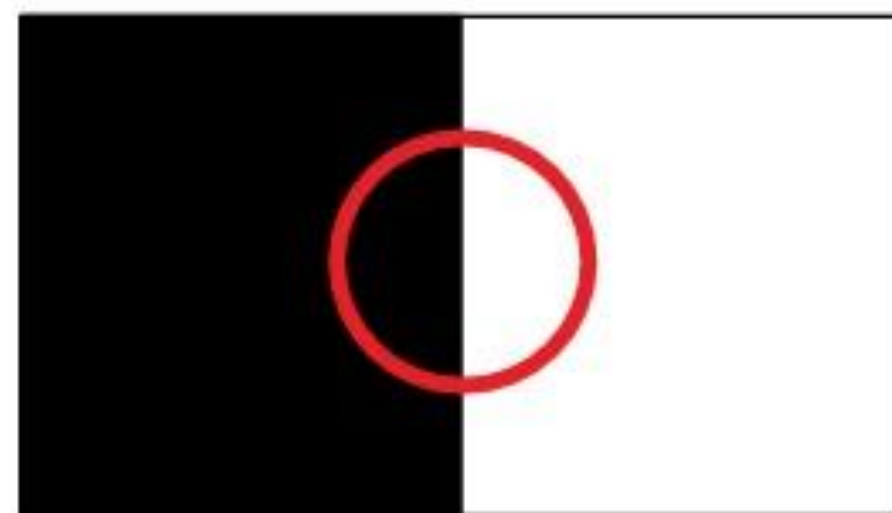
그런데 빨간색 원 바깥의 더 큰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그림들 가운데 어떤 그림일지 추측해 보자.

빨간색 원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더 큰 그림을 추측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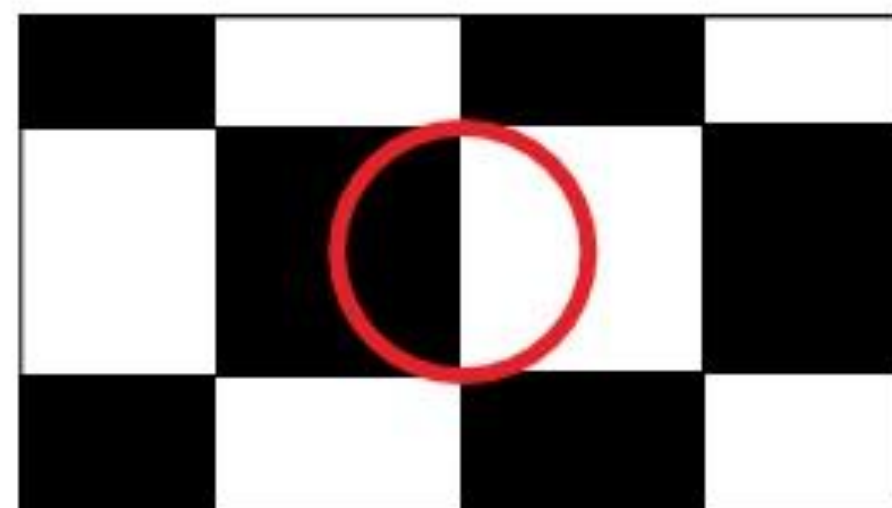




generalise



generalise



generalise



일반화 (generalization)

가정과 실험

만약 당신이 어린 아기이고

The baby seems to be asleep

The baby seems asleep

두 문장을 들은 적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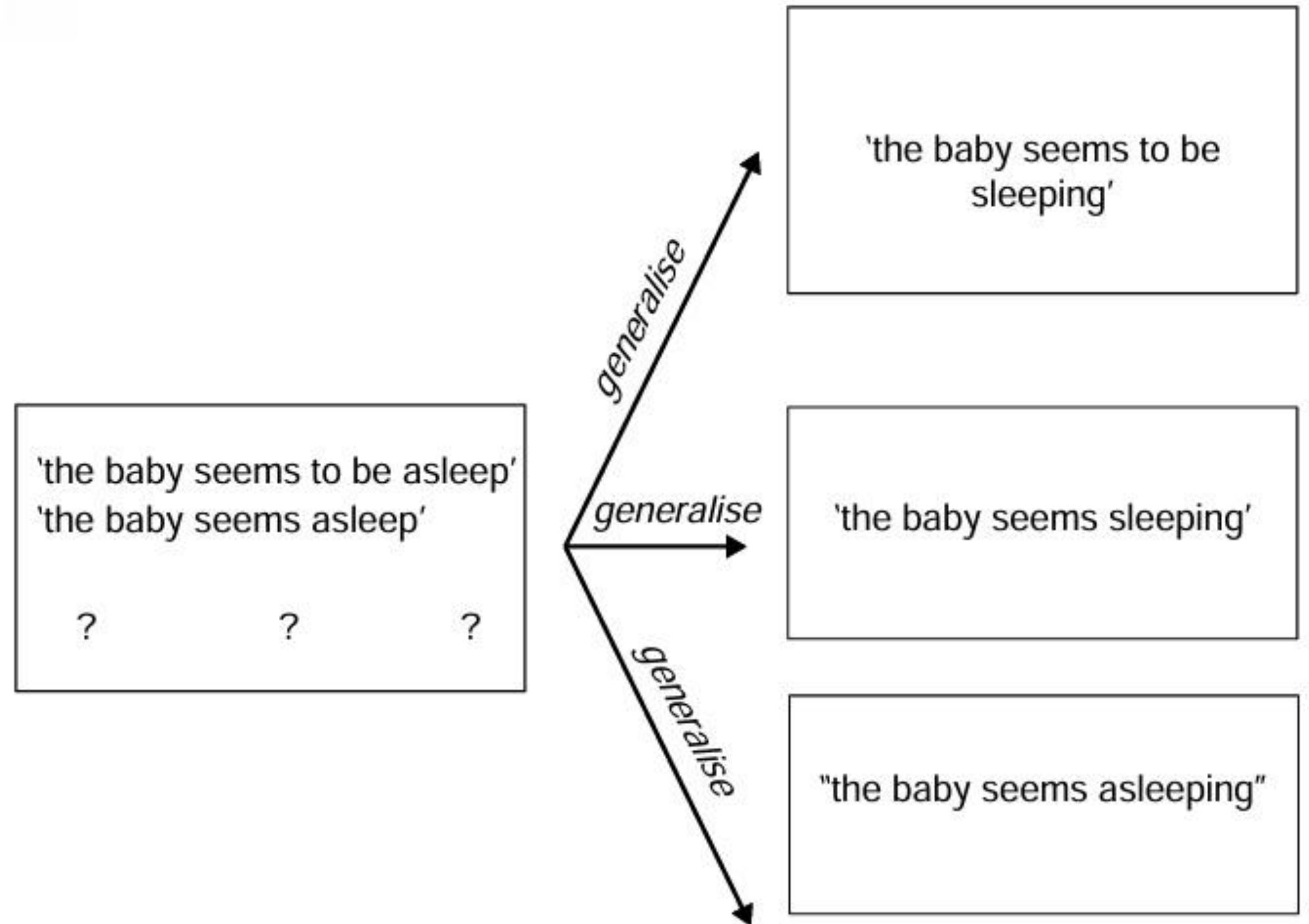
그러면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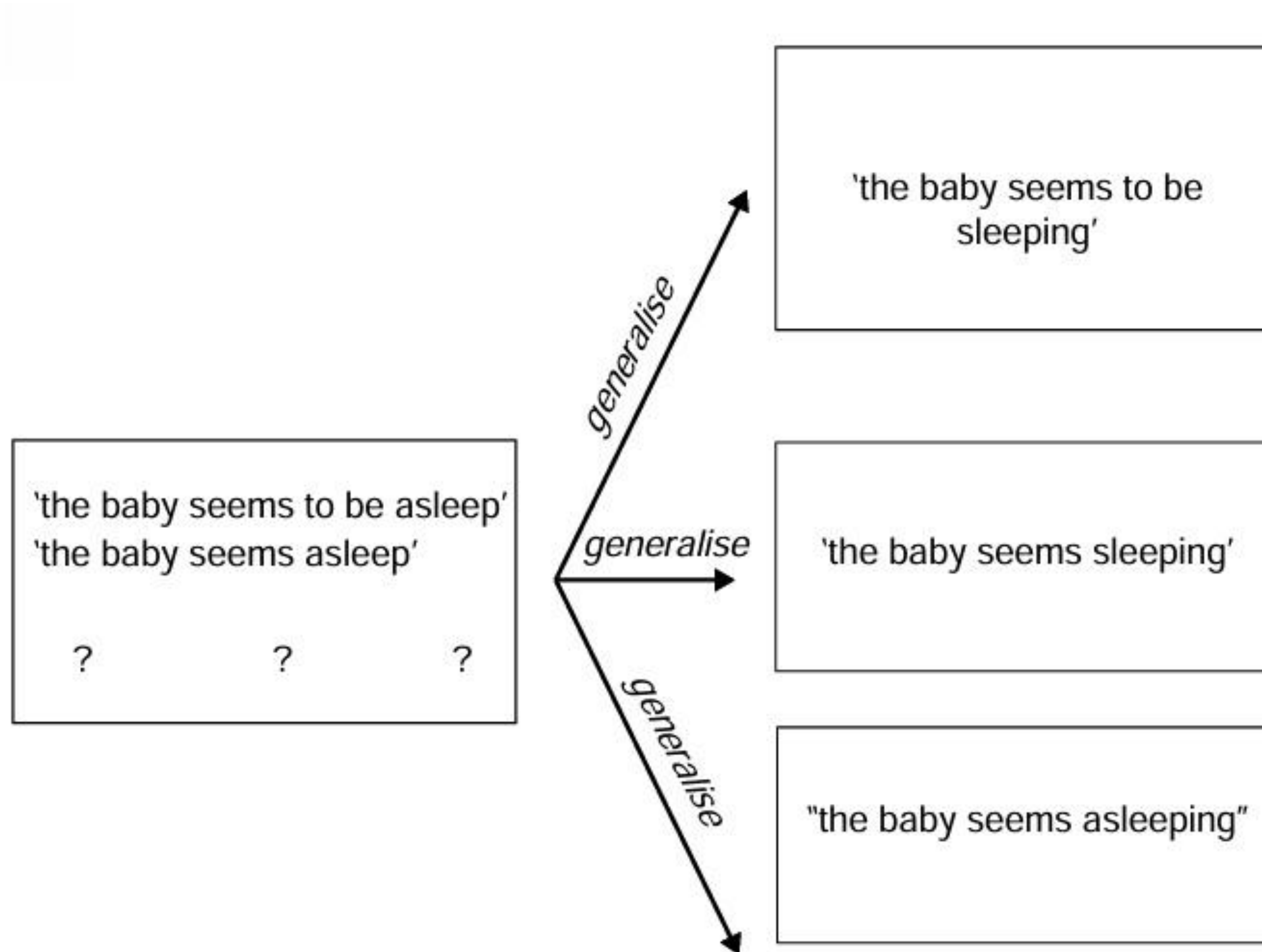
The baby seems to be sleeping.

The baby seems sleeping.

The baby seems asleeping.

중에서 어떤 문장이 맞다고 추측할 것인가?





안전한 일반화

만약 안전한 일반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I disappeared the Rabbit'과 같은 잘못된 문장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의미는 알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한 일반화 방법은
처음에는 무리한 추측을 하지 않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이미 확인된 패턴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나는 토끼를 사라졌다. (X)
토끼가 사라졌다.

나는 토끼를 사라지게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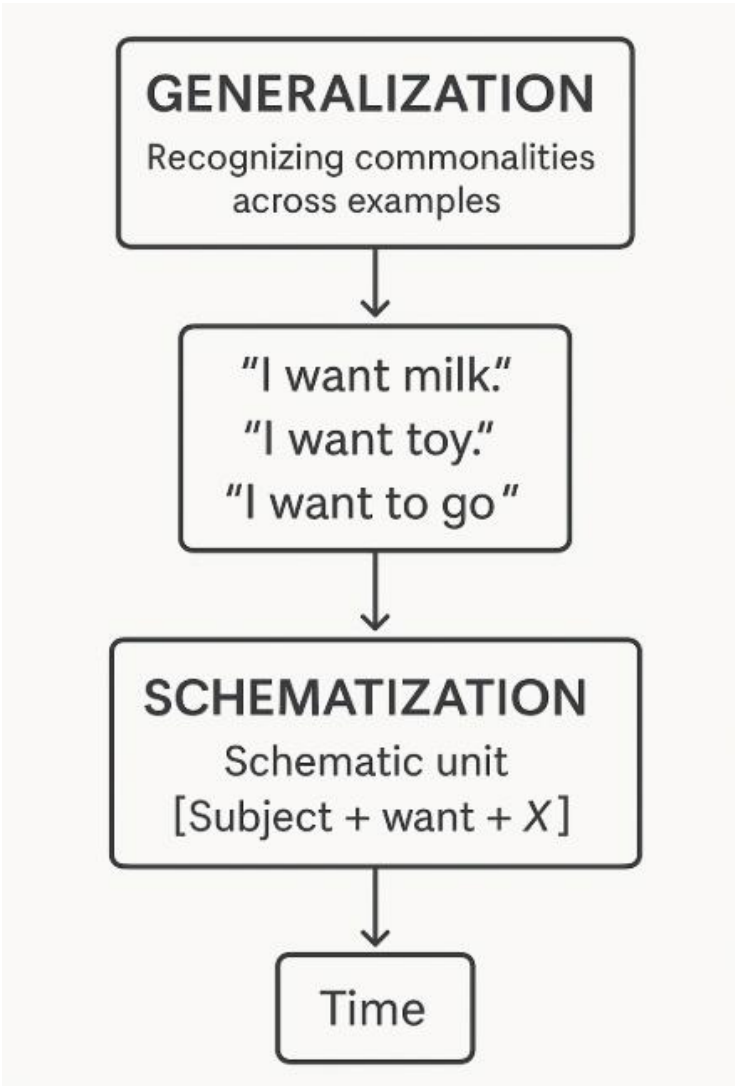
거북이 이상하게 생겼지? (900)
똑같이 생겼지? (900)
거북이 이상하게 나왔어. (900)

정병철(2023: 79) 한국어 구문 네트워크의 발생

인간과 동물 인공지능의 일반화 능력 비교

항목	인간	동물	인공지능 (AI)
일반화 가능성	있음	부분적으로 있음	있음
일반화 범위	구체 → 추상, 실제 → 가상까지 가능	감각 기반 제한적 일반화	데이터 기반 패턴 일반화
언어를 통한 일반화	가능 (개념화, 은유 등)	불가능	제한적 (지시문 해석 수준)
자기 성찰적 사고 (메타 인지)	있음	거의 없음	없음
창의적 사고	유추, 은유 가능	매우 제한적	홍내 가능, 의미는 이해하지 못함
추상 개념 이해	정의, 자유, 공정성 등 가능	불가능	유사 표현 생성 가능, 이해는 불가
실생활 적용 능력	유연하게 가능	유사 상황에만 반응	학습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

사용, 일반화, 추상화, 도식화, 도식



단계	설명	한국어 예시
사용 (usage)	실제 언어 사용	"줘 봐", "봐 봐", "열어 봐", "읽어 줘", "들어 줘"
일반화 (generalization)	공통 구조 인식	"V어 봐", "V어 줘"
추상화 (abstraction)	동사 종류 제거 → 공통 틀 인식	"V1어 V2" (예: 시도, 요청)
도식화 (schematization)	구조를 인지적 틀로 조직	[동사 어간 + 어 + 보조 동사]
도식 (schema)	새로운 표현 생성에 사용되는 구조화된 틀	[V1어 V2] → "앉아 봐", "달아 줘", "말해 봐" 등

항목	구문문법에서의 스키마	독서 이론에서의 스키마
근본 개념	반복된 언어 사용에서 일반화된 인지적 구조	반복된 경험에서 일반화된 인지적 구조
적용 대상	언어의 형식과 의미	현실 세계의 개념, 사건, 절차, 상황 등
형성 방식	언어 표현이 반복되며 공통 패턴이 추출되어 구조화됨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며 개념 간 연결이 구조화됨
기능	언어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데 사용됨	글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됨
예시	주어 + want + X, NP가 NP를 V한다 등의 구문 구조	식당 스키마: 메뉴 → 주문 → 식사 → 계산
적용 학문	인지언어학, 구문문법	인지심리학, 독서 교육 이론
공통점	경험 기반의 일반화와 구조화, 예측·해석 기능 수행	
차이점	언어 구조의 이해와 생산 중심	내용 이해와 정보 추론 중심

구문문법의 도식과 독서 이론의 스키마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개념 → 구문문법은 국어교육학 이론과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히 조화될 가능성이 있음

Rumelhart, D. E. (1980). Schemata: The building blocks of cognition. In R. J. Spiro, B. C. Bruce, & W. F. Brewer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pp. 33–5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Rumelhart, D. E., & McClelland, J. L. (1986).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Explorations in the microstructure of cognition. Volume 1: Found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생각의 확장]

사용 기반 접근의 관점에서 규칙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언어 사용의 사례들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 (1) '알밥', '콩밥', '인삼밥'과 달리 '김밥'이 [김:뽕]으로 발음되는 현상
- (2) '수소(수컷 소)'가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므로 '수소'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표준어 규정 2장 1절 7항에도 불구하고) [순쏘]로 발음되는 현상
- (3) '잊힌 기억'이 아닌 '잊혀진 기억'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현상
- (4) '-기 바라(요)'보다는 '-기 바래(요)'가 현실적으로 더 선호되는 현상
- (5) '뽕지 마', '굶자'의 'CVCC' 현실 발음

지난 4월 저희 다움은 신입 단원을 선출하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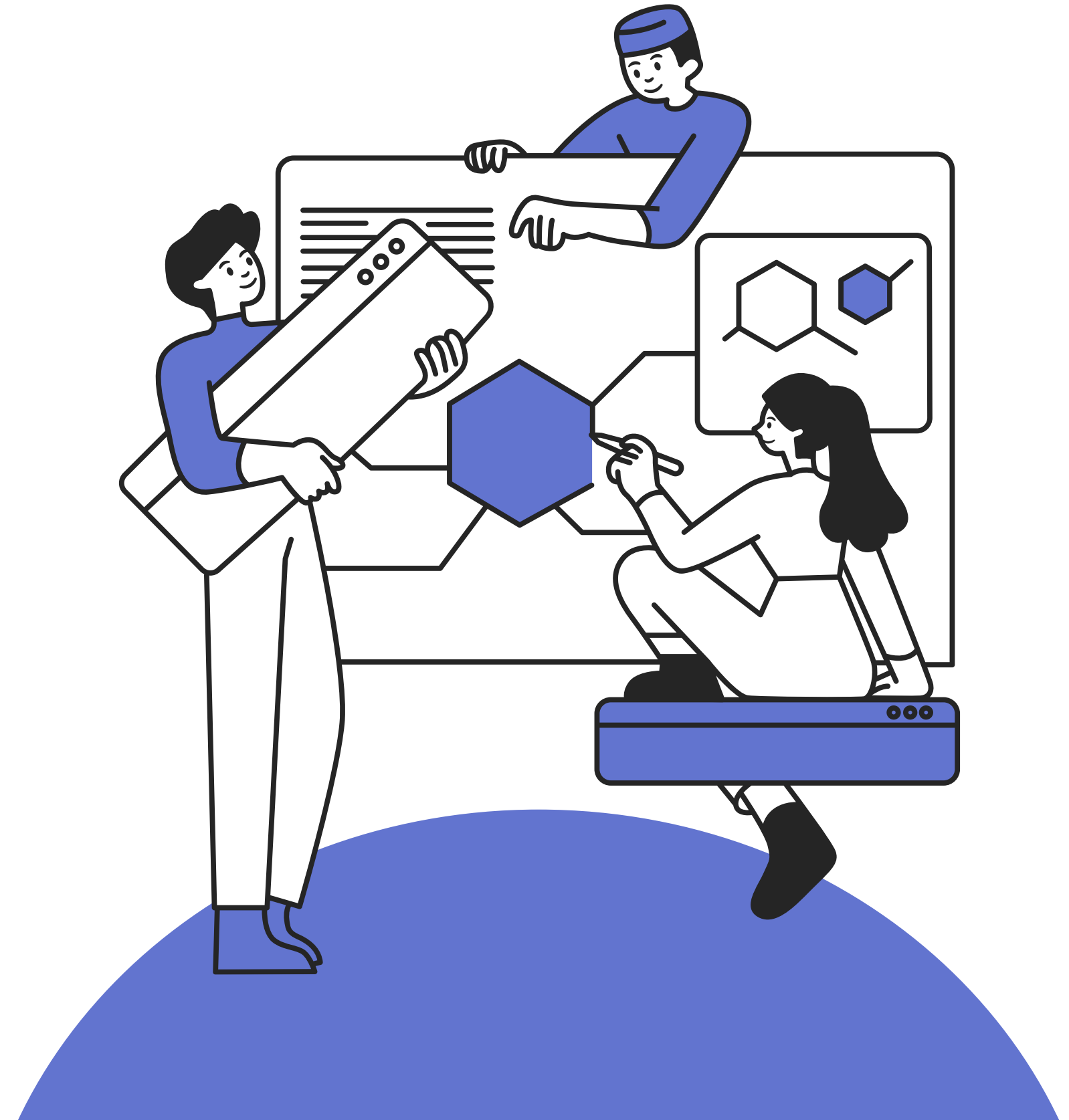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는 관계를 '친해지기 바래'를 진행하여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팀을 나눠 각 팀마다 시간을 맞춰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 **사용 기반 접근의 관점에서** 규칙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언어 사용이 반드시 틀렸다고 간주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언어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음

구문 네트워크

Construction Network



정말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언어 지식은 사용에 기반하여 발생한 구문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가?

한 아이의 초기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관찰되는
구문 네트워크의 발생 과정을 추적



정병철(2023), 한국문화사



항목	구문부 (construct-i-con)	구문 네트워크 (construction network)
정의	언종의 마음속에 저장된 모든 구문의 총체	구문들 사이의 관계와 구조를 나타내는 체계
초점	구문의 저장과 보유	구문 간의 연결과 조직 구조
비유	언어 지식의 사전 또는 목록	언어 지식의 지도 또는 네트워크
기능	의미-형식 쌍의 축적과 기억	구문들 간의 유사성, 계승, 도식화 관계 설명
포함 범위	구체적 표현부터 추상적 도식까지 모두 포함	같은 범위를 포함하되 관계 중심으로 조직

자료 3 다음은 에스더의 대화를 기록한 자료이다.

(가) D+1500

M: 에스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E: 씻어서 먹어야 되는데.

(나) D+1108

H: 너 왜 이렇게 똥똥하니?

E: 죄송합니다.

〈자료 3〉에서 볼 수 있듯이, 구문의 생성은 아이가 가진 활발한 도식화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가)는 얼핏 보면 고도의 유머 감각이 발휘된 것 같지만, 아이가 경험을 통해 과일을 먹을 때는 씻어서 먹어야 한다는 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식을 활성화했을 뿐이다.

D+0641 E: 꺼. ('이건 내 거야.'라는 의미로, 물건을 품으로 가져가면서)

D+0690 E: 내 꺼. E: 나도(아도>나도)

D+0921 E: 아빠, 비오프 내 꺼니까 먹어지 마.

D+1330 E: 엄마, 개가 내 꽃을 다 먹으려 그래.

D+1459 E: 아빠, 내 돌고래 엄청 점프 잘 하지?

D+1459 E: 어, 내 동생은 너무 귀여워서 아빠를 사랑하나 봐.

D+1463 E: 아빠, 내 무지개 유니콘 예쁘지?

[내 N] 피벗 구문이 발생하기 전에
D+641부터 D+1330 전까지
[내 꺼]라는 특정 표현만이 사용되는
기간을 거친다.

D+0723 M: 꽃게 장갑 니가 찾았어? E: 나. 내가

D+0746 E: 아빠가 노래해.

D+0761 E: 내가 먹을래.

D+0769 E: 아기 허북이가 업져. (아기 거북이가 없어.)

D+0769 E: 문어가 다리가 많다.

D+0784 E: 저리 가, 내가 하고 있잖아.

D+0821 E: 내가 만들어 볼게.

D+0832 E: 내가 할게.

D+0833 E: 그래서 내가 ‘싫어’ 했어요.

D+0756 E: 아빠는 공부.

D+0832 E: 나는 세 살 할 거야.

D+0864 E: 엄마, 에스더는 비행기 탔다.

D+0864 E: 나는 뽀로로 색 할 거야.

D+0877 E: 우리는 사랑하나봐.

D+1042 E: 아빠는 뽕뽕해서 유모차 타면 안 돼.

D+1042 E: 아빠는 너무 무거워서 탈 수가 없어.

D+1054 E: 돌고래는 분수가 나와.

D+1054 E: 애는 엄마 돌고래, 애는 아기 돌고래.

D+1084 E: 나는 돌고래라고 해.

D+0690 E: 아도(나도)

D+0722 E: 나도 차 타.

D+0749 E: 나도 있어.

D+0773 E: 나도 먹을까?

D+0773 E: 나도 먹을까?

D+0773 E: 나도 (손가락) 뺏다.

D+0773 E: 나도 해파리야.

D+0795 E: 나도 복어 먹고 싶어.

D+0816 E: 나도 세차했어.

D+0821 E: 나도 해 볼게.

D+0823 E: 나도 잘 한다.

D+0825 E: 나도 까까 먹을래.

D+0833 E: 나도 파란색 선물 받고 싶어

D+0840 E: 나도 먹고 싶는데.

D+0845 E: 아빠도 엄마야?

D+0845 E: 아빠도 선생님이야?

D+0690 E: 아도(나도)

D+0722 E: 나도 차 타.

D+0749 E: 나도 있어.

D+0773 E: 나도 먹을까?

D+0773 E: 나도 먹을까?

D+0773 E: 나도 (숟가락) 뺏다.

D+0773 E: 나도 해파리야.

D+0795 E: 나도 복어 먹고 싶어.

D+0816 E: 나도 세차했어.

D+0821 E: 나도 해 볼게.

D+0823 E: 나도 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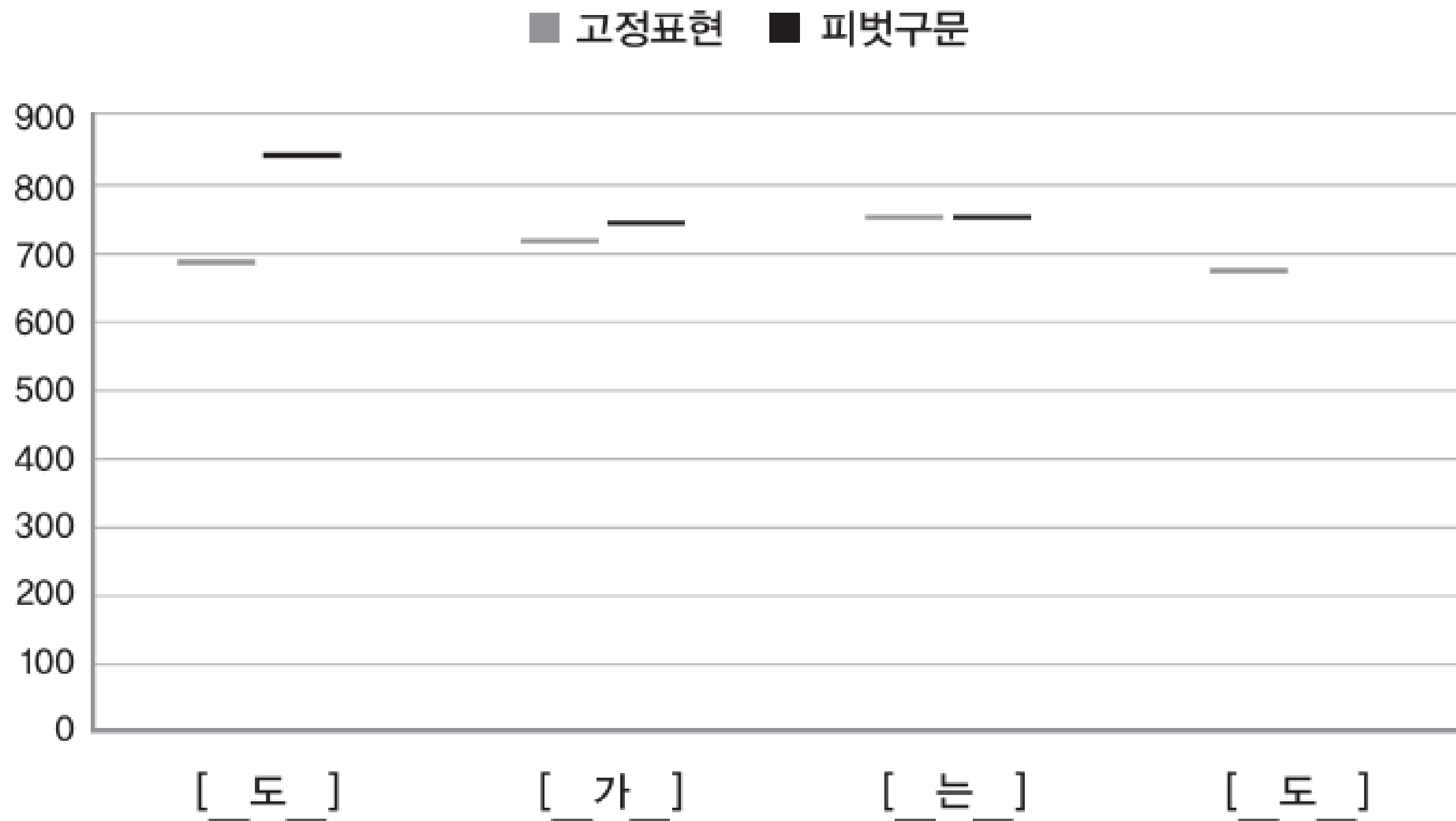
D+0825 E: 나도 까까 먹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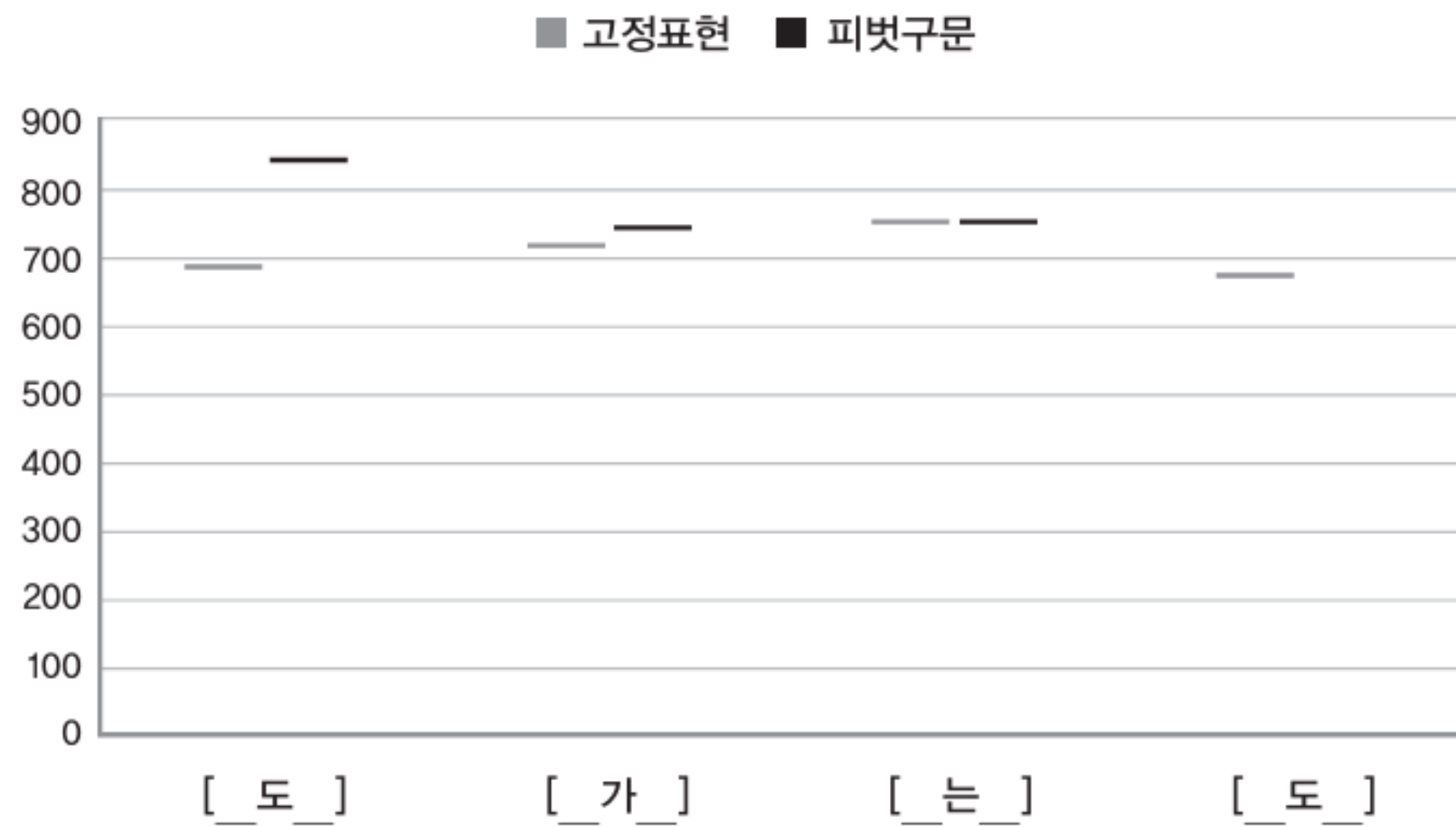
D+0833 E: 나도 파란색 선물 받고 싶어

D+0840 E: 나도 먹고 싶는데.

D+0845 E: 아빠도 엄마야?

D+0845 E: 아빠도 선생님이야?





[_가], [_도], [_는], [_]는 각각 다른 시기에 발생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달하는 독립된 구문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_도]를 제외하고 [_가], [_는], [_]의 발생 시차가 10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포함되는 추상성이 더 높은 층위의 '주어' 범주의 발생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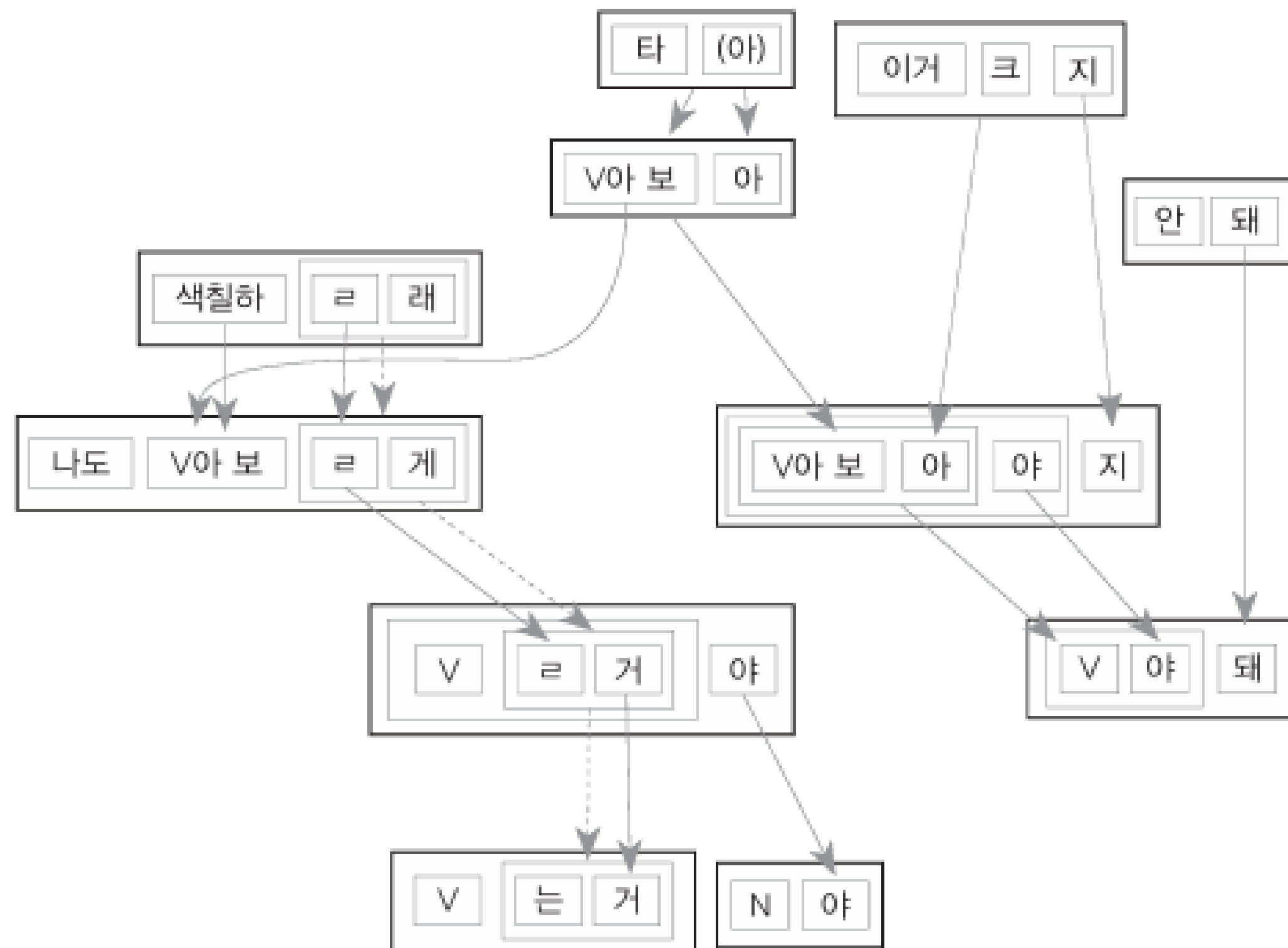
습득 시기	산출 구문		관련 구문들
682	엄마, 줘 봐.	[V어 봐]	[V어 보][아]
705	엄마, 이거 사 줘.	[N V어 줘]	[V어 주][어]
708	봐봐 달.	[N V어 봐]	[V어 보][아]
735	나가 보자.	[V어 보자]	[V어 보][자]
756	이거 앉아 봐야지.	[N V어 봐야지]	[V어 보][(아)야지]
782	불 꺼 주세요.	[N V어 주세요]	[V어 주][세요]
794	여기에 앉아 보자.	[N에 V어 보자]	[V어 보][자]
795	무서워, 내려 줘.	[V어 줘]	[V어 주][어]
795	물고기 잡아 줘.	[N V어 줘]	[V어 주][어]
795	(장난감) 붙여 줘.	[V어 줘]	[V어 주][어]
821	나도 해 볼게.	[나도 V어 볼게]	[V어 보][ㄹ게]
821	내가 만들어 볼게.	[내가 V어 볼게]	[V어 보][ㄹ게]
821	아빠가 만들어 봐.	[N가 V어 봐]	[V어 보][아]
1084	돌고래가 누워 버렸어.	[N가 V어 버렸어]	[V어 버리][었][어]
1084	돌고래 죽어 버렸어.	[N V어 버렸어]	[V어 버리][었][어]
1084	쓰레기가 덮여 버리고 있어.	[N가 V어 버리고 있어]	[V어 버리][고 있][어]
1312	돌고래가 죽어 버렸어.	[N가 V어 버렸어]	[V어 버리][었][어]
1336	엄마한테 혼나 버렸어.	[N한테 V어 버렸어]	[V어 버리][었][어]

N	새로 발생한 구문	구문의 구성
668	타 ▶[V어/아]	
682	줘 봐 ▶[V어 봐]	▶[V어 보-] ◀668[V어/아]
735	나가 보자 ▶[V아 보자]	◀682[V아 보-] ◀735[V자]
718	색칠할래 ▶[Vㄹ래]	▶[Vㄹ-]
723	내가 ▶[내가]	
761	내가 먹을래 ▶[내가 Vㄹ래]	◀723[내가] ◀718[Vㄹ래] ◀718[Vㄹ-]
821	내가 만들어 볼게 ▶[내가 V어 볼게]	◀723[내가] ◀682[V어 보-] ◀718[Vㄹ-] ▶[Xㄹ게]
680	나도 ▶[나도]	
821	나도 해 볼게 ▶[나도 해 볼게]	◀680[나도] ◀682[V어 보-] ◀718[Vㄹ-] ▶[Xㄹ게]
707	큰 거 ▶[Xㄴ 거]	
784	너 때문이야 ▶[N(이)야]	
832	나는 세 살 할 거야 ▶[Vㄹ 거야]	◀718[Vㄹ-] ◀821[Xㄹ게] ◀707[Xㄴ 거] ◀784[N(이)야]
892	차가 밥 먹는 거야? [V는 거야?]	◀707[Xㄴ 거] ◀832[Vㄹ 거야]

새로운 구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토대가 되는 다른 구문들이 충분히
학습되어
자동화되는 과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문 네트워크의 점진적인 형성 과정

구문 A의 자동화 → 구문 A+1의 학습 → 구문 A+1의 자동화
구문 B의 자동화 → 구문 B+1의 학습 → 구문 B+1의 자동화
구문 A의 자동화 → 구문 B의 자동화 → 구문 A+B의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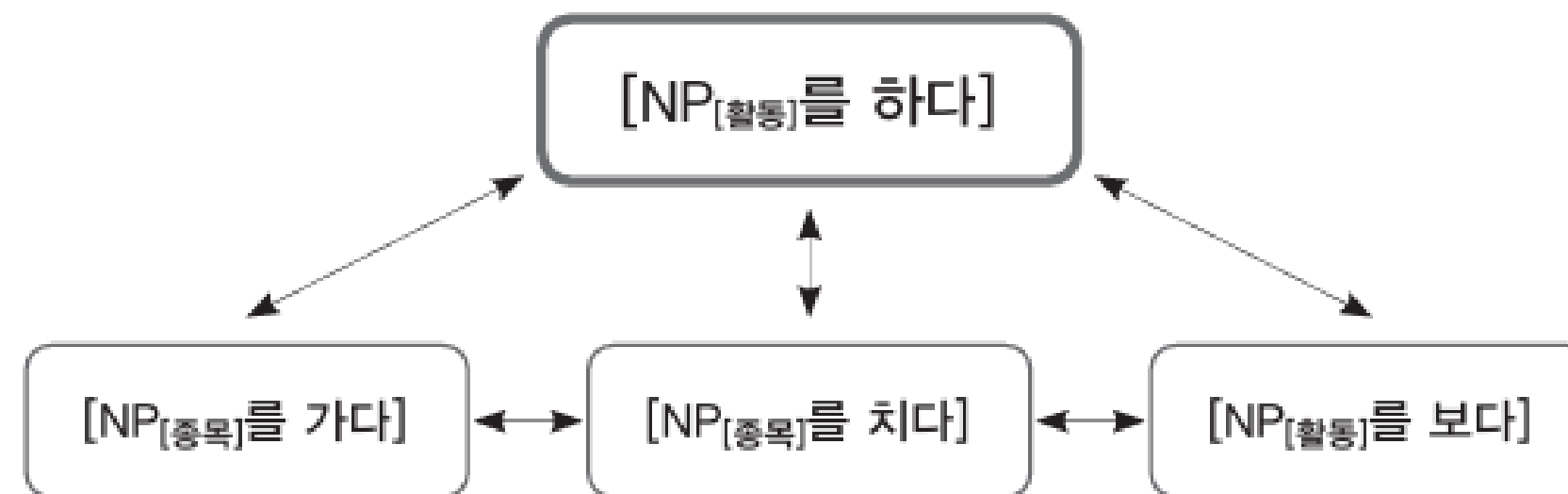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서 관찰되는 구문 네트워크의 사례

철수가 등산을 간다.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함)

철수가 탁구를 친다. (타동사 '치다'의 목적어는 '탁구공'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함)

철수가 시험을 본다. (타동사 '보다'의 목적어는 '시험지'가 되는 것이 더 적절함)

위와 같은 문장들은 내재된 통사 규칙으로 생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문으로 학습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각각의 구문들은 <그림 2>와 같이 유사성과 차이를 가지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다.



<그림 2> 추상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자동사 구문의 네트워크 (정병철 2021b: 313)

[NP_[야외/레저 활동]를 가다] 구문은 영어의 [go+동명사(-ing)] 구문과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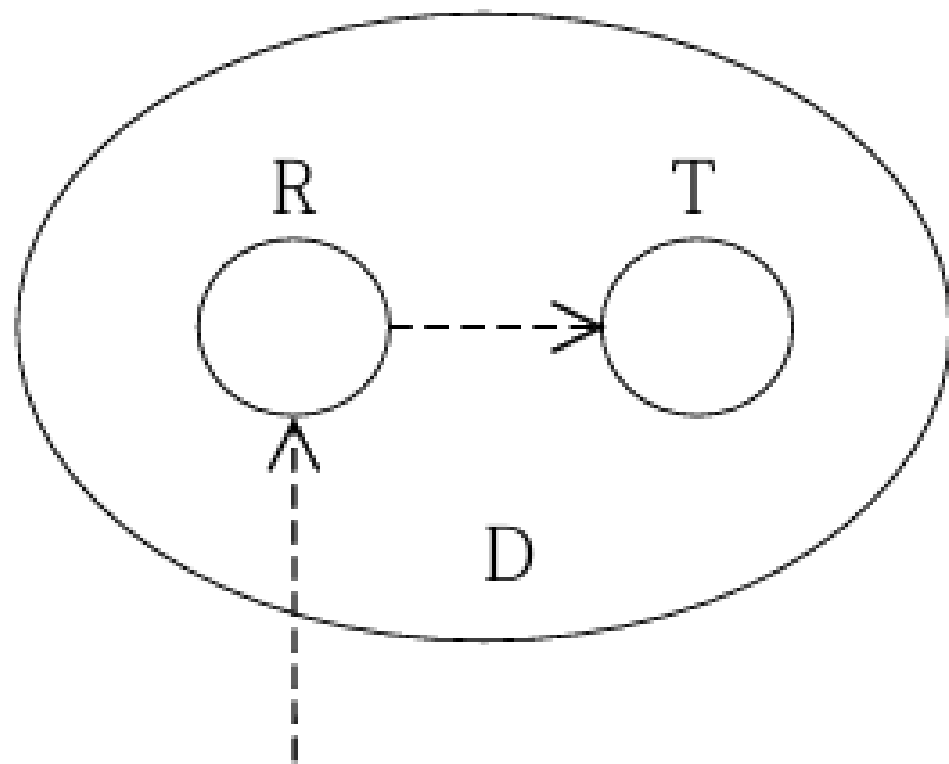
수영을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캠핑을 가다	go skiing (스키 타러 가다)
낚시를 가다	go snowboarding (스노보드 타러 가다)
암벽등반을 가다	go skating (스케이트 타러 가다)
서핑을 가다	go hiking (등산하러 가다)
수영을 가다	go camping (캠핑하러 가다)
등산을 가다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공부를 가다	go climbing (암벽등반하러 가다)
*방탈출을 가다	go surfing (서핑하러 가다)
*빨래를 가다	go boating (보트 타러 가다)
	go sailing (요트 타러 가다)
	go diving (잠수하러 가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go sightseeing (관광하러 가다)
	go birdwatching (조류 관찰하러 가다)
	go stargazing (별을 보러 가다)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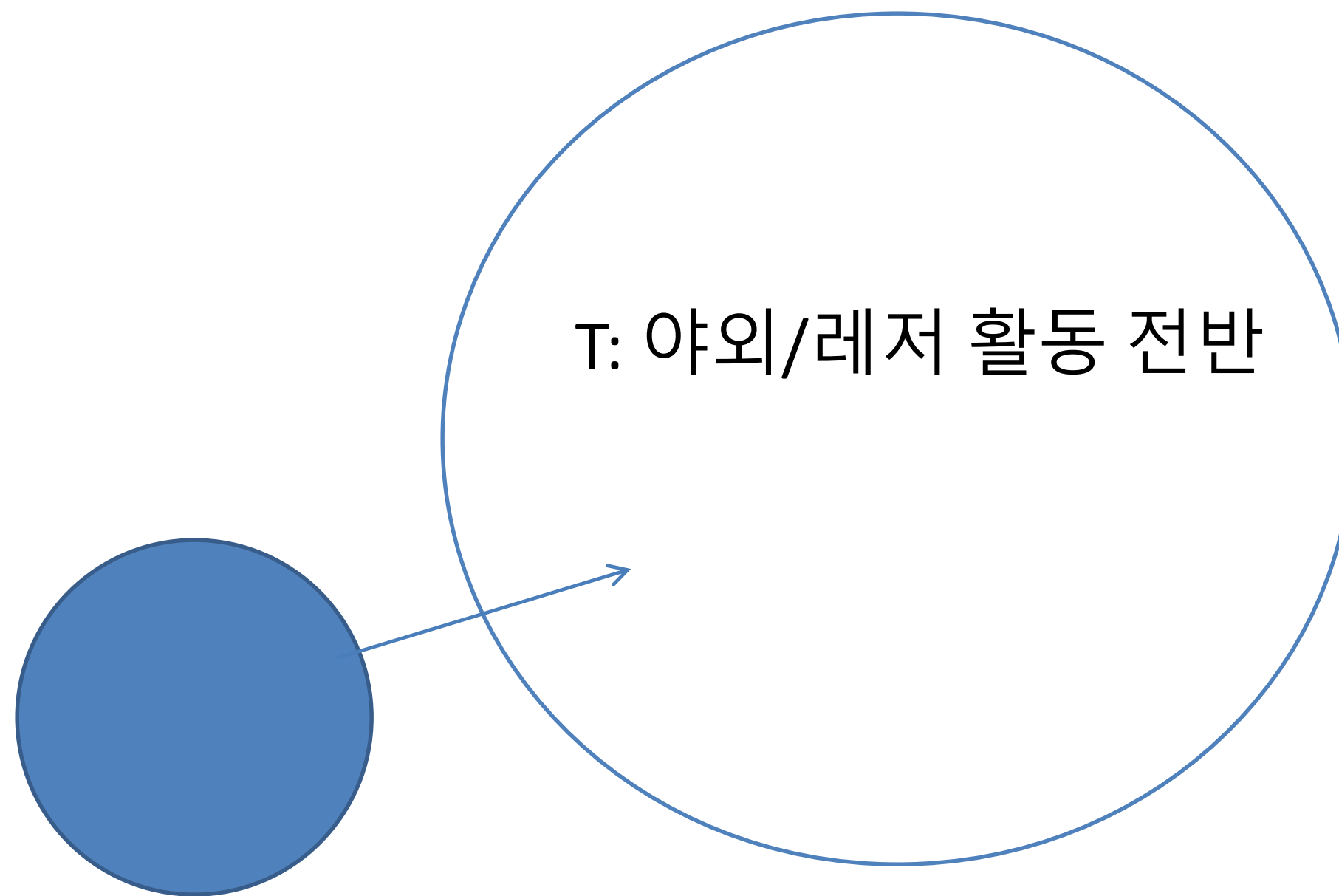
두 구문 모두 명사와 동명사가
야외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 나타냄

차이점>

한국어는 '가다' 대신 '오다'도
사용 가능함



참조점 관계 (Langacker 2009: 53)



R: '가다', '오다' 등 이동 사건

일반적인 사역이동 구문들

He kicked the ball into the goal.

→ 그는 공을 골대 안으로 찼다.

She pushed the door open.

→ 그녀가 문을 밀어 열었다.

They pulled the boat ashore.

→ 그들이 배를 끌어 육지로 옮겼다.

He threw the keys onto the bed.

→ 그는 열쇠를 침대 위에 던졌다.

The wind blew the papers off the desk.

→ 바람이 책상 위의 종이들을 날려버렸다.

He brushed the crumbs onto the floor.

→ 그는 부스러기들을 바닥으로 털어냈다.

Goldberg(2006: 5)의 수정된 정의에 따르면 통사와 의미를 구성요소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도 충분한 빈도로 발생하면 구문으로 저장될 수 있다.

합성성을 어기는 사역이동 구문들

She laughed the glass off the shelf.

→ 그녀가 웃다가 (충격으로) 유리가 선반에서 떨어졌다.

He danced his shoes off his feet.

→ 그는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춤쳤다.

They shouted the birds out of the tree.

→ 그들이 소리를 질러 나무 위의 새들을 날아가게 했다.

He coughed his hat off.

→ 그는 기침하다가 모자를 벗겨버렸다.

C가 어떤 의미-형태의 짝인 $\langle Fi, Si \rangle$ 일 때 Fi 나 Si 의 어떤 양상을 그것의 구성요소나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른 구문으로부터 분명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C는 구문(construction)이다.

Goldberg(1995) 초기 정의에 해당하는 구문의 예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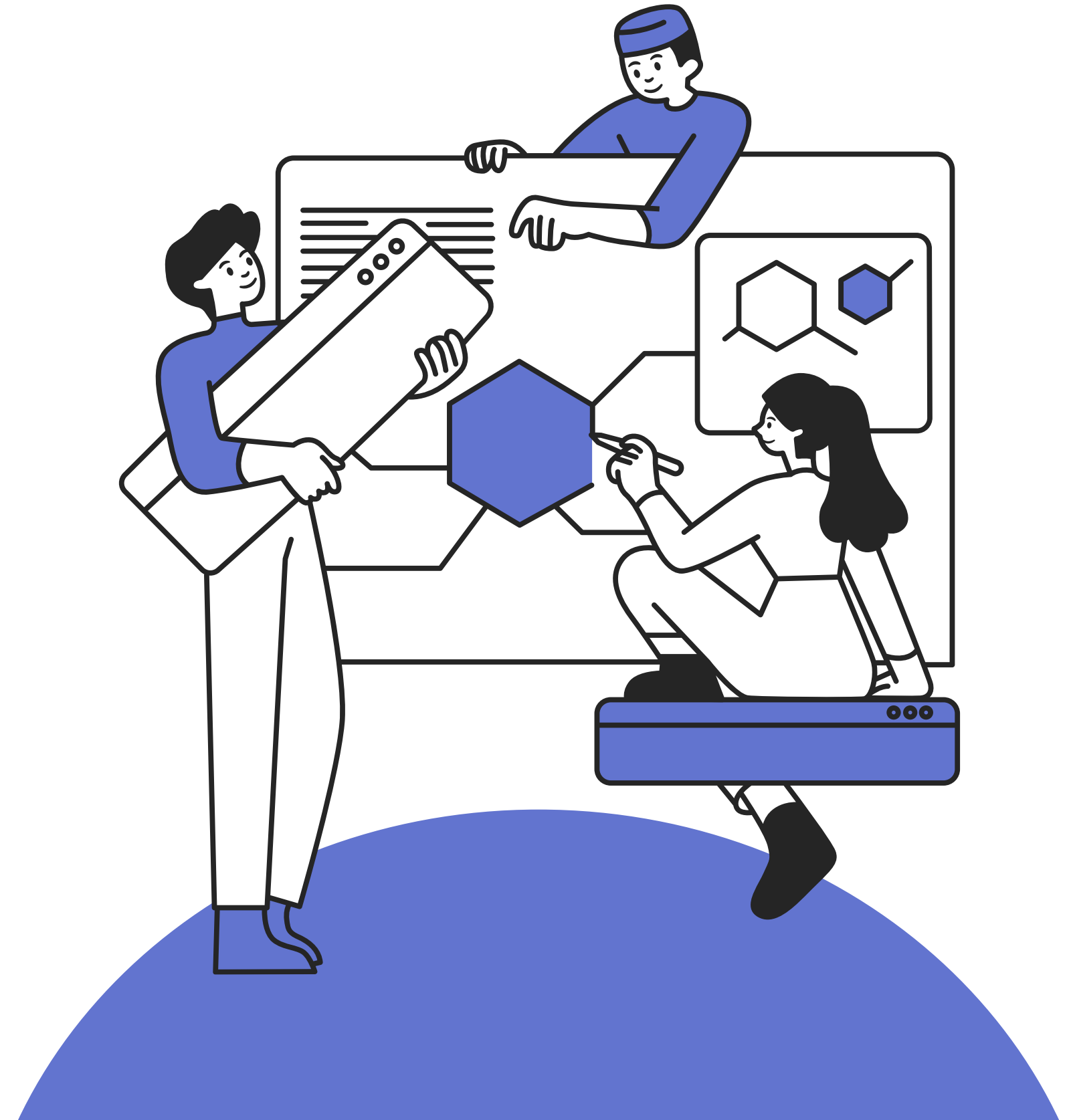
[생각의 확장]

구문문법은 한 언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언어의 구축(학습) 과정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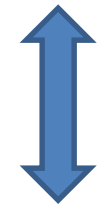
- (1) 예를 들어, 한국어 보어(c) 구문의 사례들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특정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관찰된다.
- (2)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언어학자(국어학자)는 언어 학습의 결과물인 한국어만이 아니라 언어 학습과 발달의 과정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900	거북이 이상하게 만들지 마	[Obj C(A게) V(만들다)]
900	똑같이 생겼지?	[Subj C(A이) V(생기다)]
900	거북이 이상하게 나왔어	[Subj C(A게) V(나오다)]

동기(화)



자의성(恣意性, arbitrariness): 특정한 언어 표현(=구문)의 형태와 내용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



동기(動機, motivation): 어떤 언어 표현(=구문)에서 특정한 형태와 내용이 짝을 이루게 된 요인

어떤 구문에는 자의성과 동기가 다양한 비중으로 공존한다.

구조주의와 생성문법에서는 언어의 자의성과 자율성, 모듈성을 중시함

→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의 형태(구조)가 인간의 경험, 인지, 신체화(embodiment),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함

→ 신체화, 개념적 은유, 환유, 참조점 현상, 도상성, 표현성 vs 효율성 등

개념적 은유

Conceptual metaphor

은유는 인간이 신체와 신체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전달하기 힘든 개념을
사고하고 전달하는 데 유용한 추상화 메커니즘이다.

→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사례들

사랑은 함정, 혹은 웅덩이

사랑은 무색 무취 무형의 개념으로
신체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묘사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깨졌다.
사랑이 불타오른다.

→ ‘사랑’을 신체를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이해하고
소통한다.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용어 이해

근원 영역(source domain)은 목표 영역(target domain)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데 필요한 영역이다.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간에 유사성에 근거한 적절한 사상(mapping)이 이루어질 때 은유가 발생하게 된다.

‘사랑이 넘친다’는 그릇을 근원 영역으로 하여 사랑이라는 목표 영역을 이해하는 은유를 보여준다.

Understanding 사랑(목표 영역) in terms of 그릇(근원 영역)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명사들은 원형적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는데, 추상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명사들이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과정에도 구체화(reification)의 은유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문법적인 구조에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 예들이다(정병철 2022: 103).

쥐가 쥐구멍으로 들어갔다. ↔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쥐가 쥐구멍에서 나왔다. ↔ 그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다. ↔ 혹독한 훈련을 통해 해병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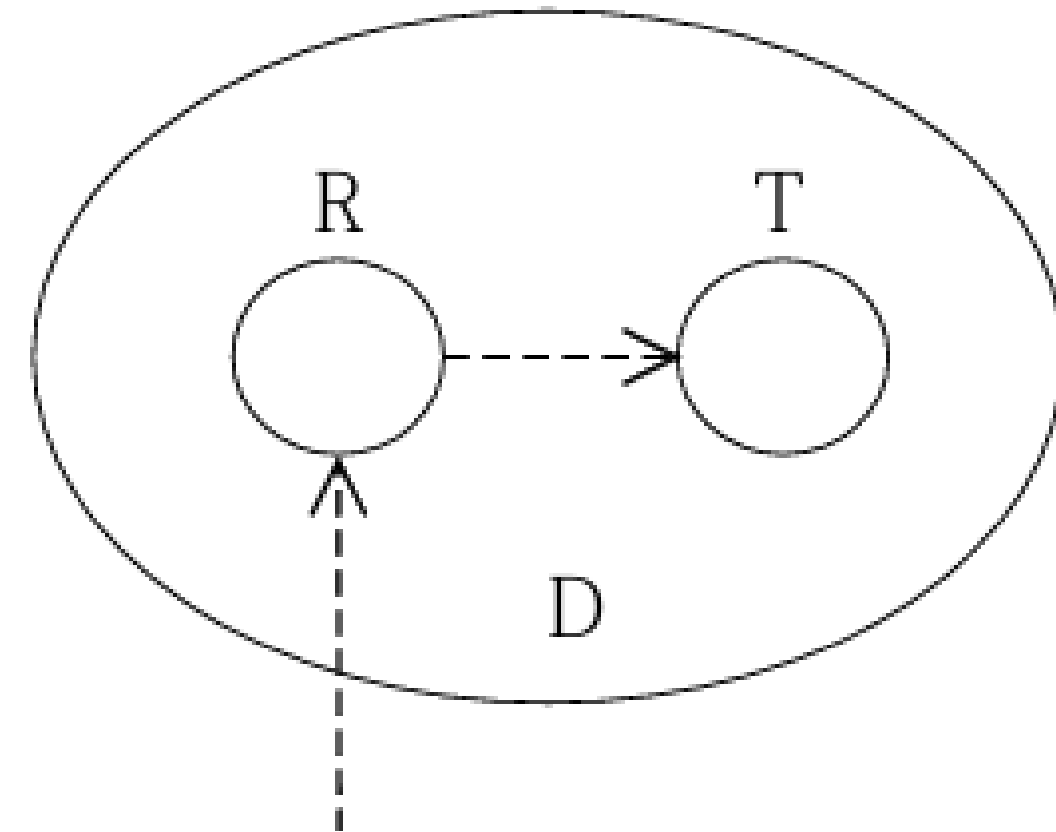
정병철(2022). 한국어에 나타나는 신체화의 양상. 인문논총 59, 99-124.

개념적 환유

환유 단순히 문학작품에 사용되는 수사법이 아니다.

인간이 신체와 신체 감각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참조점)을 통해 그렇지 않은 개념(목표)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전달하는 데 유용한 인지적 메커니즘이다.

→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onymy)



참조점 관계 (Langacker 2009: 53)

사례들



삼각별: 인간은 어떤 **개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나 시각적 상징**을 통해 기억하고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음. → 환유의 매체와 목표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어떤 참조점이 목표를 더 강력하게 활성화 할 수 있음

‘벤츠 자동차’ 하면 복잡한 이름보다는 단순하고 강렬한 시각 상징인 삼각별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로고 자체가 자동차 전체를 대표하게 됨.

반면 KIA나 현대의 로고는 환유적인 활성화의 강도가 벤츠에 비해 떨어짐

사례들

집 부서진다



사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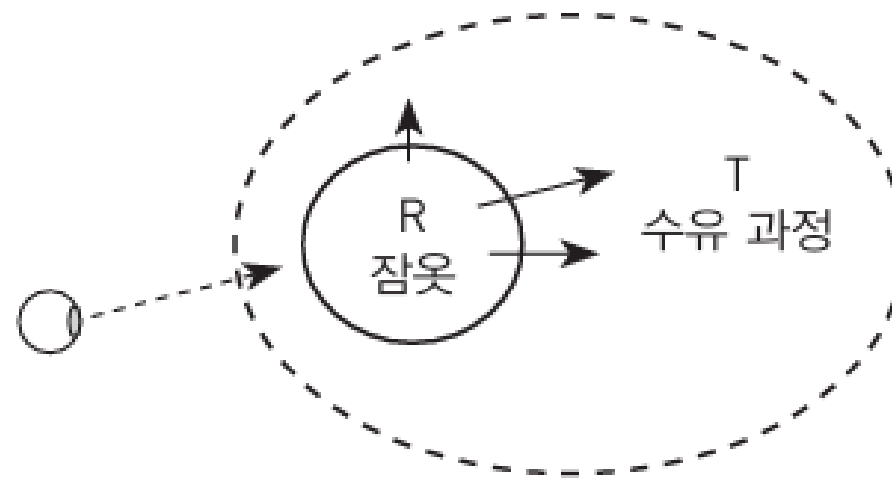
10000km와 80000km를 비교해 주세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주행거리 10000km인 차와 80000km인 차의 가격과 성능 등을 비교해 달라는 의미일 수 있다.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관찰되는 환유

D+497

E가 엄마에게 잠옷(수유복)을 주면서 마치 이걸 입고 자기한테 수유를 해달라는 것처럼 울면서 따라다닌다. 엄마가 항상 잠옷을 입은 후에 수유를 시작하기 때문에 E에게는 엄마가 잠옷을 입는 것이 수유에 대한 동반경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환유가 유아에게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관찰되는 환유

D+668

다음은 E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들인데 대부분 환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 '다시'라는 뜻으로 미끄럼틀을 다시 타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또: 수목원에서 꽃을 보고 있는데 비슷한 꽃이 또 나타날 때 사용된다.

타: 유모차에 타고 싶을 때 하는 말이다.

빠: 카시트에서 빠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밑에: 백화점에서 차가 지하로 내려갈 때 외치는 말이다.

키티: 헬로키티²¹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관찰되는 환유

(C-1) 뽀뽀뽀뽀 ⇨ 구급차 ⇨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고 싶다. (간접 화행)

(C-2) 뽀뽀뽀뽀 ⇨ 구급차 ⇨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해 달라. (직접 화행)

D+647

엄마가 먹던 캐슈넛을 주워 먹더니, E의 입 주변에 알레르기가 붉게 올라왔다.

E: 뽀뽀뽀뽀 (병원에 가자) [△ 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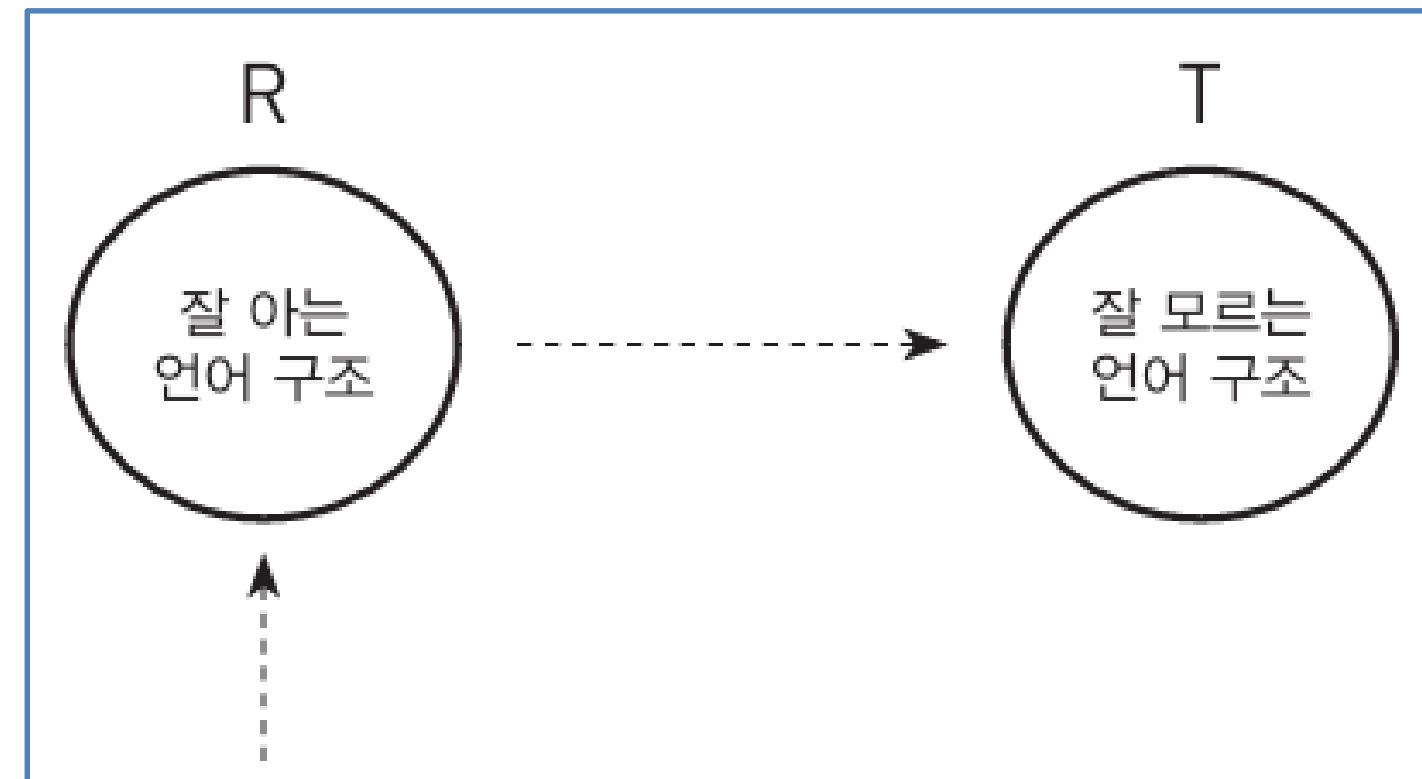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관찰되는 환유

D+846

E: 아니, 안 잡아. (잡지 마) [△ 환유]

D+1219

E: 눈이 오고 싶은데. [△ 환유]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관찰되는 환유

Tomasello(2003)에 따르면 아이들은 만 1세를 전후하여 의사소통을 시작하기 전 다음 두 가지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의도 읽기 (기능적 측면)
- 패턴 찾기 (문법적 측면)

의도 읽기(intention-reading)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지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내는 능력이다.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에 알맞은 지시 대상을 파악해 내는 능력은 신경의 거울 활동 및 고도의 추론 작용을 필요로 하며 환유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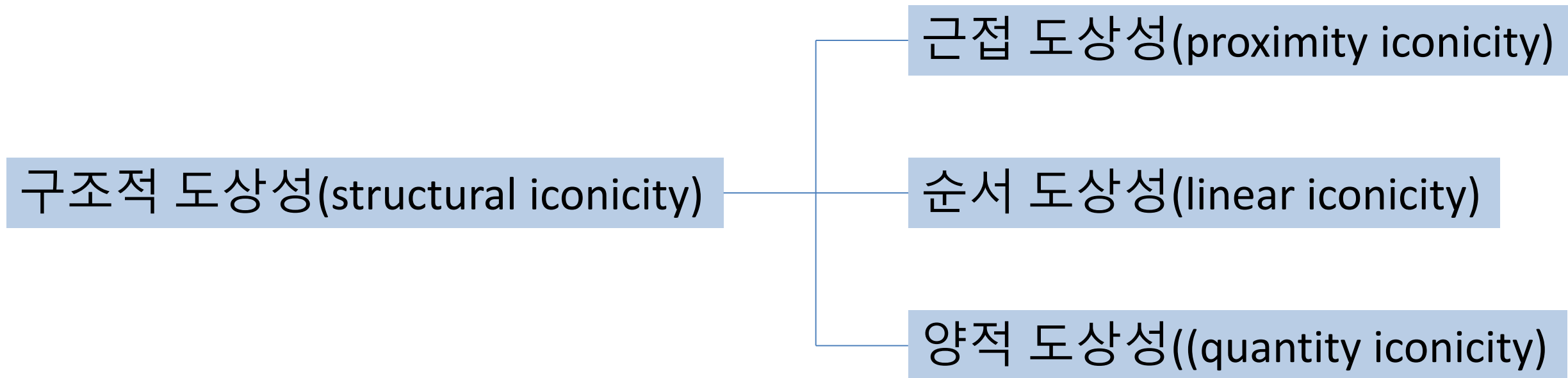
[생각의 확장]

개념적 은유와 환유는 문법 교육과 국어 교육의 전통적인 경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 (1) 개념적 은유는 시학과 글쓰기 그리고 사고 과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 (2) 개념적 환유 역시 시학과 글쓰기의 표현 효과, 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도상성

Iconicity



도상성의 개념은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등 언어 구조의 배열 및 구성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동기화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는 언어의 관습 및 자의성의 영역이다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문법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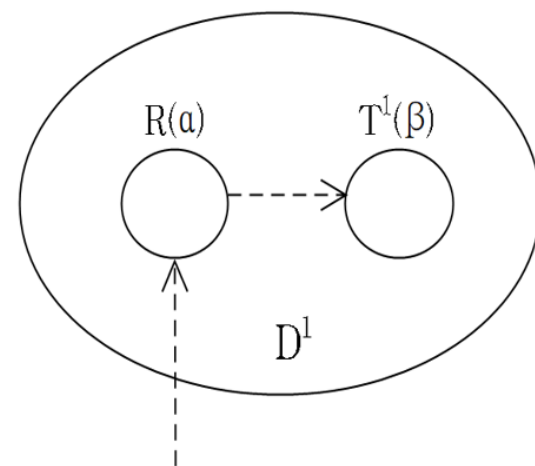
문이 열렸다.
문이 열어졌다.
철수가 문을 열게 되었다.

음운(론)과 형태(론)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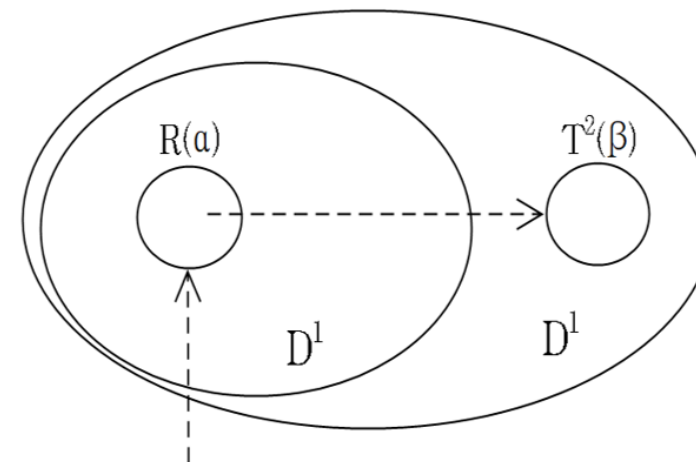
합성어에서 사잇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

- ① α 와 β 의 개념적 관계가 더 가까운 경우 (근접 도상성)
- ② α 가 β 보다 정신적으로 먼저 접근되어야 하는 경우 (순서 도상성)
- ③ α 와 β 의 개념적 관계가 더 단순한 경우 (양적 도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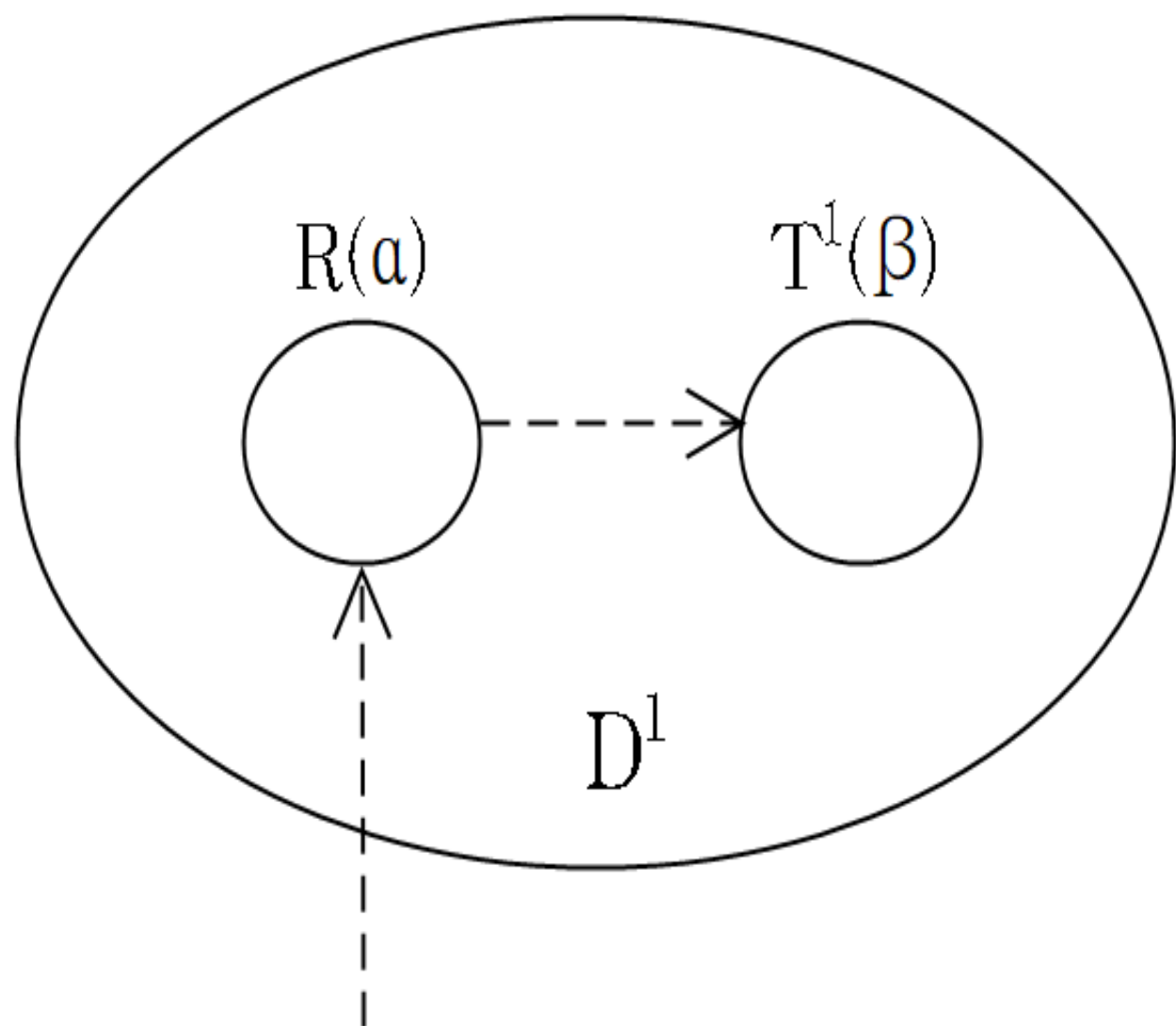
사잇소리가 개재하지 않는
합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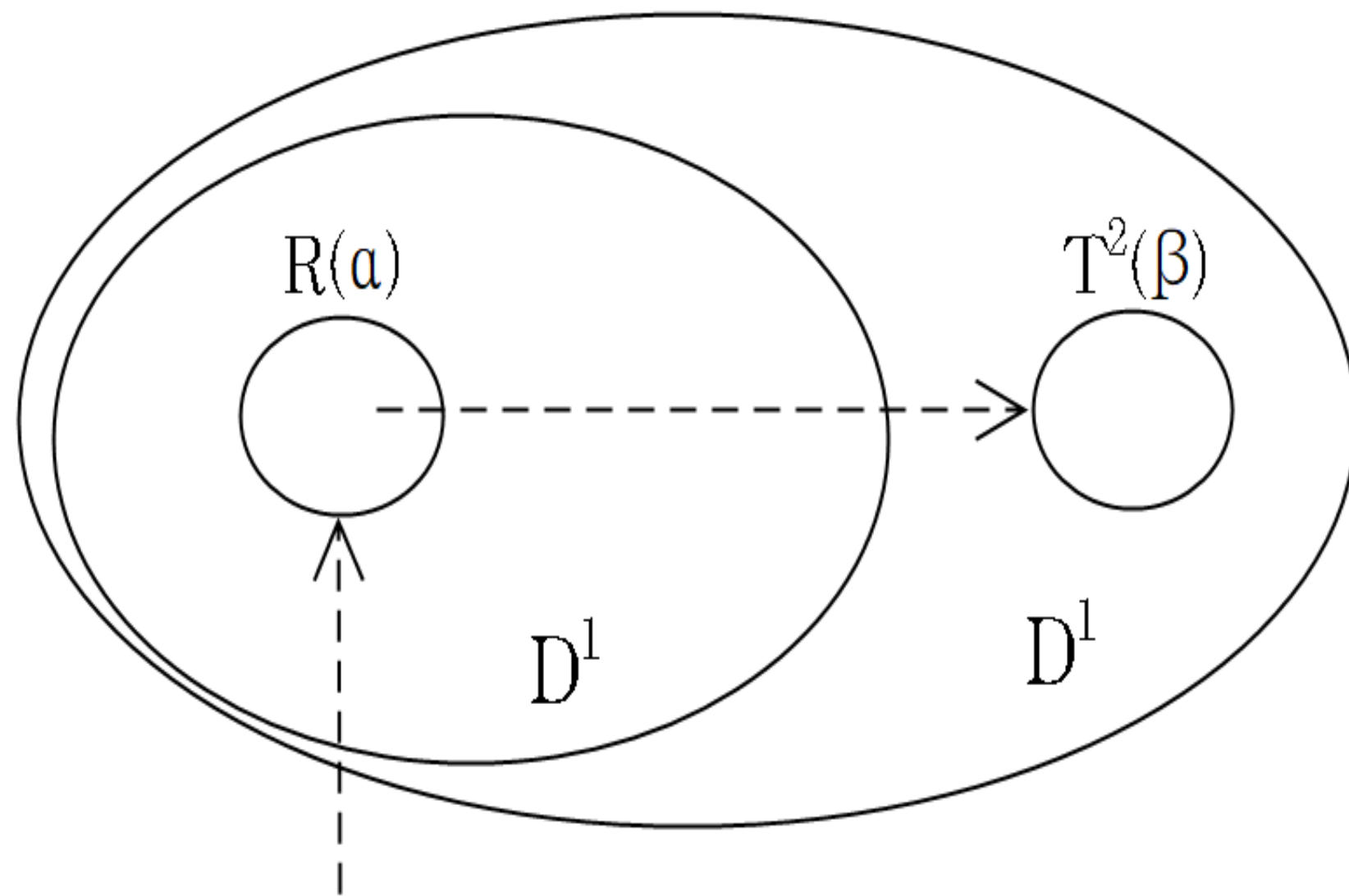
사잇소리가 개재하는 합성어



사잇소리가 개재하지 않는
합성어



사잇소리가 개재하는 합성어



사잇소리가 개재하지 않는 경우: α 가 β 의 ~

특징	<부분> 개다리소반, 굽다리접시, 자루바가지, 방울북(탬버린), 네발짐승
	<이름·지위> 할미새, 북한산, 남이섬, 여왕벌, 어미그루
	<대상> 꿩사냥, 물가늠, 힘자랑, 보리동냥, 돈거래
	<주 이용자> 개밥, 고래밥, 아가방, 까치집
	<용기> 통술, 병술, 병식초, 병조림, 캔고등어, 캔사이다
	<재료> 쌀밥, 콩밥, 인삼밥, 두부전, 나무배, 돌다리, 유리병, 불기둥 ¹ , 물기둥 ¹¹⁸⁾
	▪ α 와 β 가 둘 다 재료인 경우: 김 α 밥 cf. α +국(김치국/두부국/만둣국/된장 α 국)
	<형상(=모양·성질·상태)> 이슬비, 검정소, 파랑새, 소나기술, 돌주먹, 밤고구마
	▪ α 가 부사인 경우: 내리사랑 ▪ α 가 의성어나 의태어인 경우: 출렁다리, 팔랑귀 ▪ α 가 비자립적 어근인 경우: 물렁뼈, 알뜰주부, 흔들바위
	▪ < β 가 α 의 형상>인 경우에는 사잇소리가 개재한다. 눈 α 사람, 불 α 기둥 ² /물 α 기둥 ² , 물 α 방울/기름 α 방울
	<제조 수단·방법> 불고기, 칼국수/손국수, 손두부, 손글씨
	▪ <사용 수단·방법> 손 α 가방, 손 α 수건, 손 α 전등, 손 α 거울, 발 α 등상 cf. 손수레
	▪ <수행 수단> 손 α 짐작, 눈 α 대중, 발 α 짐작, 발 α 재간
	<영구적인 용도> 노래방, 빨래방, 피시방, 화장비누, 세안비누, 사과상자, 감자밭 cf. 빨랫비누, 세숫비누
	▪ <가변적인 용도> 공붓방, 글 α 방, 셋방, 물 α 그릇, 물 α 병, 쥘련 α 갑, 과일 α 바구니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콩밥

인삼밥

알밥

굴밥

김밥

왜 김밥에만 사잇소리가 날까?

콩밥

인삼밥

알밥

굴밥

김밥

‘콩밥’, ‘인삼밥’, ‘알밥’, ‘굴밥’은 α 가 β (음식 유형)의 재료이지만,
‘김밥’은 α 와 β 가 함께 또 다른 음식 유형의 재료가 된다.

음운(론)과 형태(론)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 사례

표현성 효율성 모델의 적용 정병철(2024: 99)

정병철(2024), 인지언어학의 눈으로 이해하는
한국어 형태론과 음운론, 한국문화사



‘ㅅ’ 첨가, 즉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어 구성요소인 앞말(α)과 뒷말(β)의 관계
유형을 구분하거나, 혹은 사잇소리가 개재한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구분하기 위한 표현성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성 원리 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두 표현 X와 Y가 잠재적으로 동일
한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우, 두 표현을 구분하여 표현하려는 동기
는 X와 Y가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도록 작용한다.

〈표현성 원리 ②〉 구성 요소 α 와 β 를 가진 어떤 표현 X가 처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운변동의 종류가 여러 개일 경우, X의 구성
요소 α 와 β 를 복원하기에 유리한 음운변동이 선택된다.

〈효율성 원리〉 어떤 표현 X를 발음할 때 그것을 다른 표현 Y와 구분하거나
그것의 구성 요소 α 와 β 를 복원해야 할 필요가 약한 경우, 혹은 X의
구성 요소 α 와 β 를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것을 더 쉽게
발음할 수 있게 해주는 음운변동이 선택된다.

‘ㅅ’ 첨가, 즉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어 구성요소인 앞말(a)과 뒷말(b)의 관계 유형을 구분하거나, 혹은 사잇소리가 개재한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구분하기 위한 표현성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水素) vs 슷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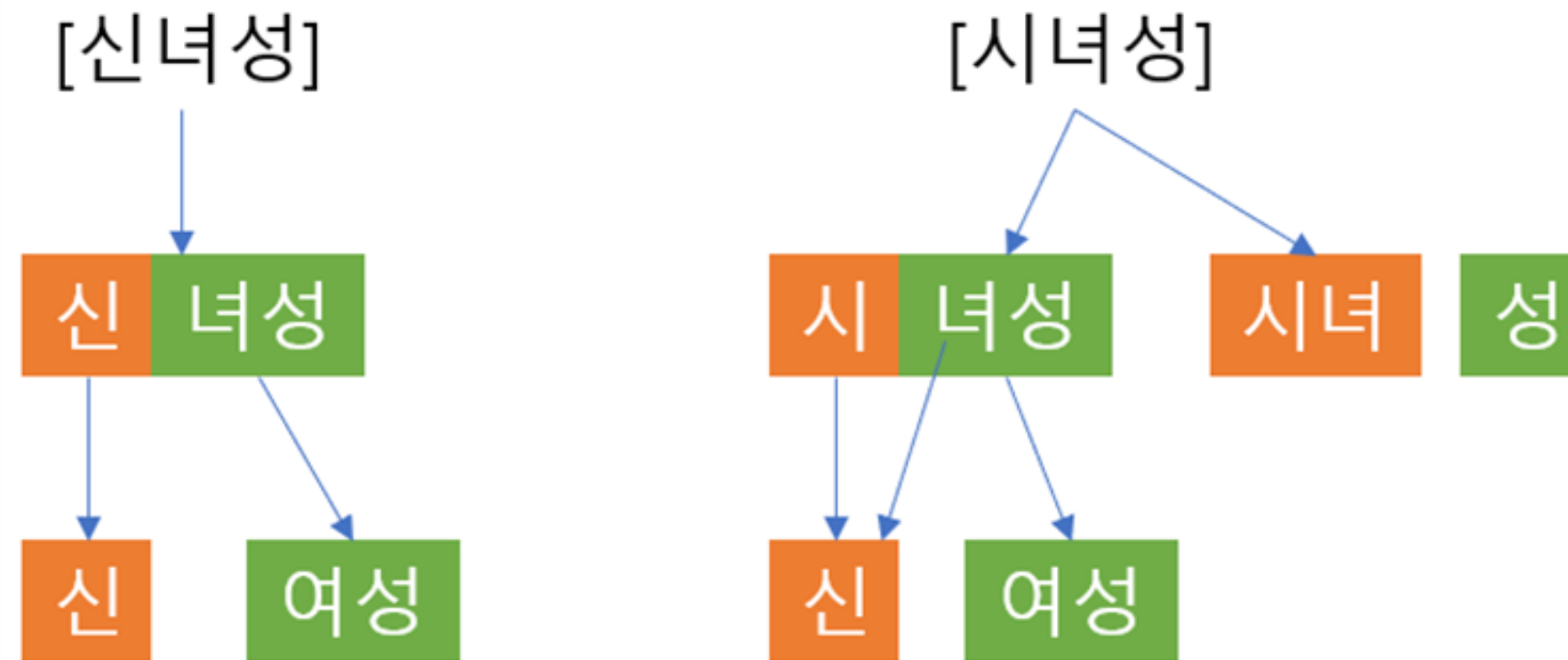
길^가, 바닷^가, 호숫^가
물^감, 장난^감
금^값, 꿀^값, 평균^값
걱정^{거리}, 반찬^{거리}, 아침^{거리}
된장^국, 콩나물^국, (뭇^국)
눈^길, 발^길, 밤^길, (둘렛^길)
눈^살, 주름^살
말^발, 사진^발, 화장^발

특정한 어근이나 접사에는 사잇소리가 끼어드는 경향이 있다.

사잇소리가 없을 경우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다.

‘ㄴ’ 첨가는 합성어에서 앞말(α)과 뒷말(β)의 경계를 생성,
원래 형태(특히 (α))의 복원 가능성을 높여줌. (표현성)

(예) 신여성[신녀성 vs 시녀성], 영업용[영업농 vs 영어봉],
휘발유[휘발류 vs 휘바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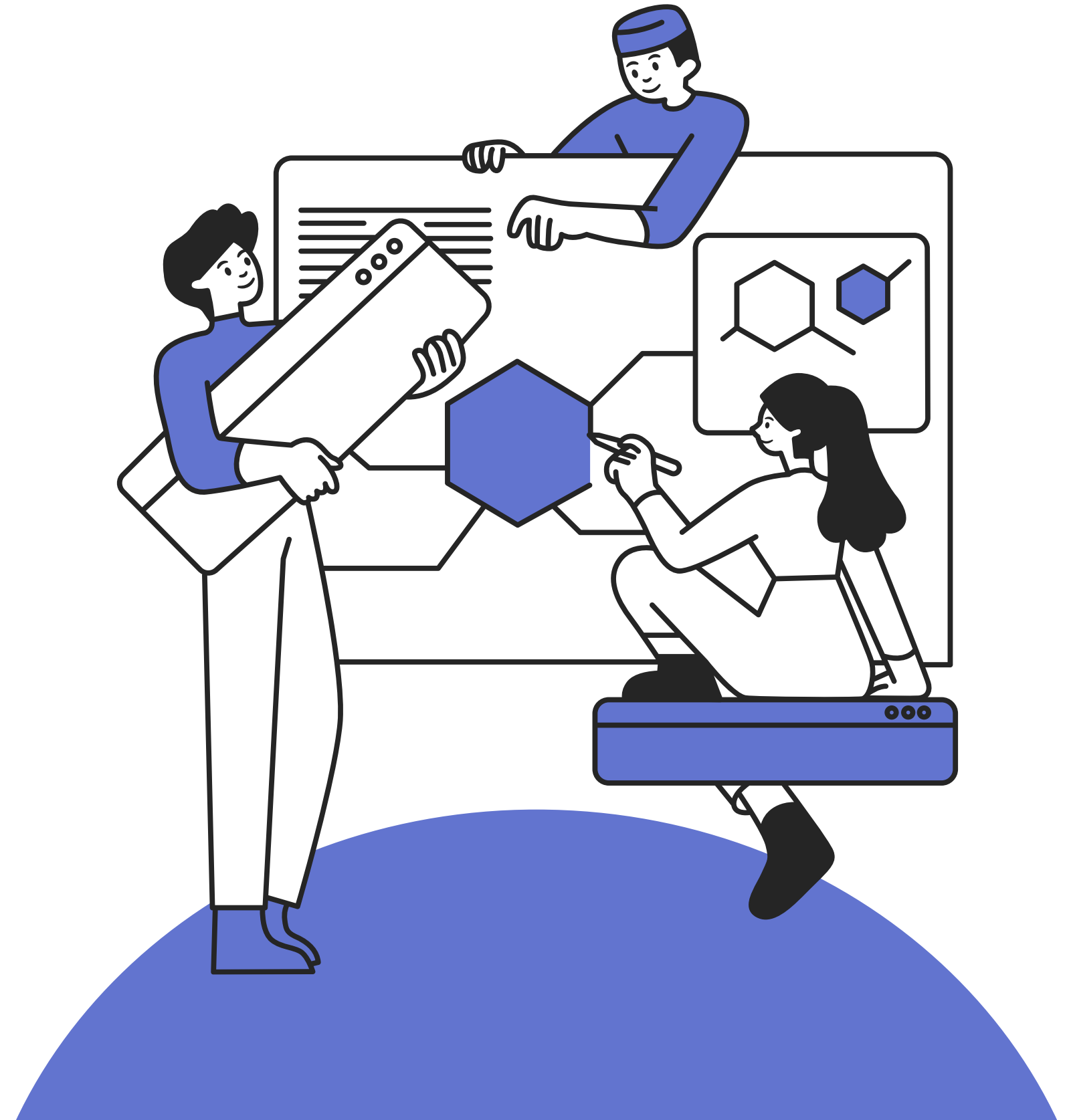


[생각의 확장]

동기 이론을 적용할 때 음운(론)과 형태(론)의 경계가 재설정될 수 있다

- (1) 동기 이론을 적용하면 음운변동은 형태나 의미적 구조에서의 차이에 대응하여 적응하는 현상일 수 있다.
- (2) 음운과 형태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므로 묶어서 다룰 필요가 있다.
- (3) 효율성/표현성 균형 모델에 따르면 모든 한국어의 음운변동 현상은 크게 발음의 효율성에 기울어진 (주로 자동적인) 음운변동과 표현성에 기울어진 (주로 비자동적인) 음운변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문법 교육 맥락에서의 시사점 종합



Hartwell(1985)의 5가지 문법

사용 기반 접근과
동기의 영역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탐구'가
가장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문법은 '무의식적 문법'과
'기술적 문법', '스타일과 문체
문법'일 수 있음

무의식적 문법 (Grammar 1 - Innate Grammar)

사람이 언어 사용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는 문법
별도의 학습 없이도 원어민이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냄
(예) 영어 원어민이 문법 공부 없이도 자연스럽게 말함

기술적 문법 (Grammar 2 - Descriptive Grammar)

실제 언어 사용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문법
문법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언어 사용 방식 설명
(예) "I ain't got no money" 같은 비표준 표현도 특정 지역에서는
일반적임

규범적 문법 (Grammar 3 - Prescriptive Gram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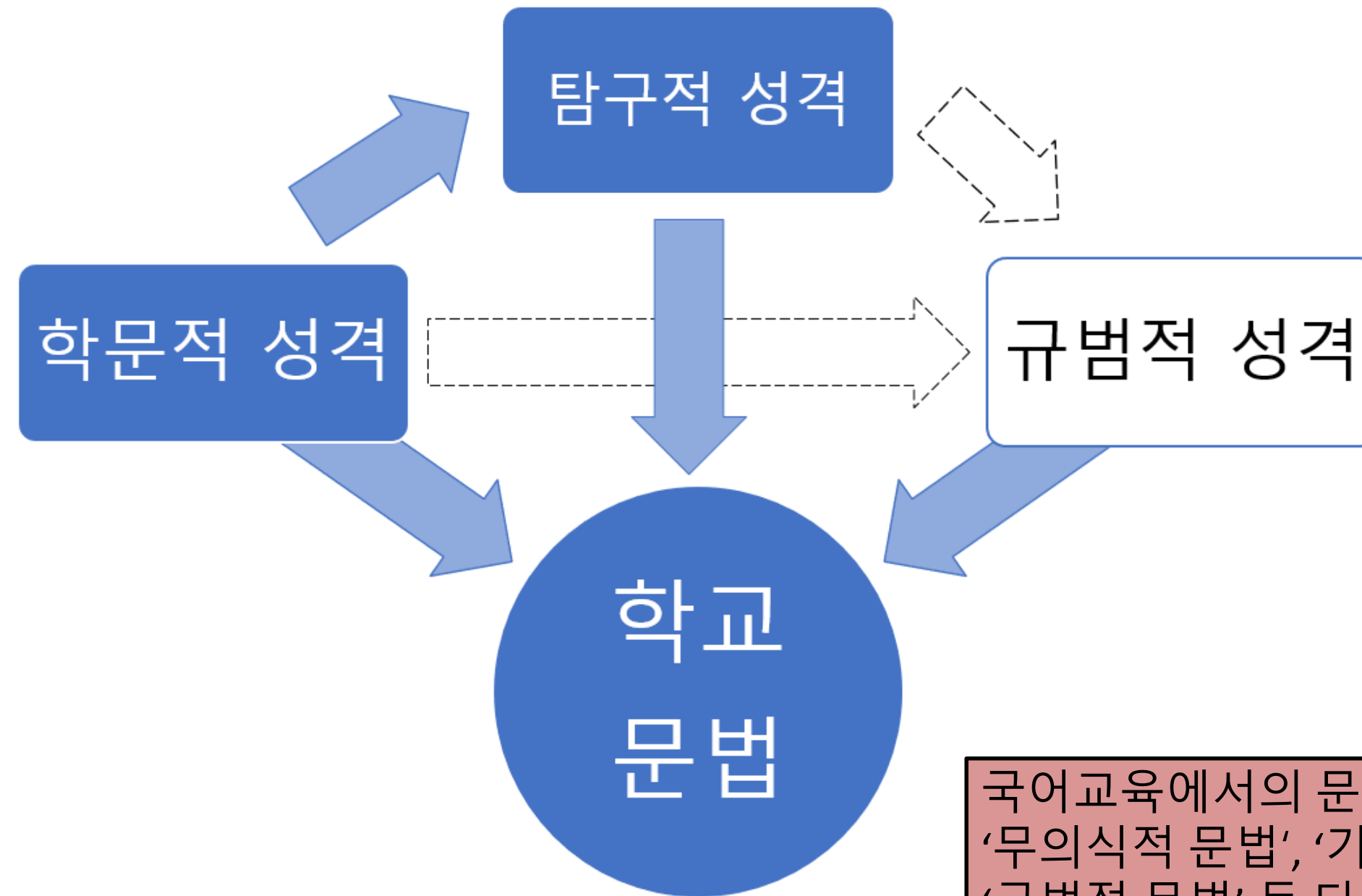
'올바른' 문법을 정하고 가르치는 역할 (linguistic etiquette)
표준 문법을 강조하며 문법적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김
(예) "성공하길 바래" 대신 "성공하길 바라"가 맞는 표현이라고 가르침

학교 문법 (Grammar 4 - School Grammar)

학교에서 배우는 전통적인 문법
품사, 시제, 문장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
(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문법 용어를 익힘

스타일과 문체 문법 (Grammar 5 - Stylistic Grammar)

문법이 글쓰기 스타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문장 구조나 문법을 변형해 문체적 효과를 강조
(예) 문장 길이를 조절하거나 문장을 변형하여 문학적 효과를 만듦



국어교육에서의 문법 개념은
'무의식적 문법', '기술적 문법',
'규범적 문법' 등 다양한 층위로 해석될 수 있지만
평가 맥락에서는 '규범적 문법'이 최종 권위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

요약

- ① 인지언어학의 핵심 개념들을 적용하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경계는 재설정될 수 있다.
- ② 규칙에서 벗어나면 틀린 것이라는 규범주의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 ③ 인지언어학의 사용 기반 접근과 동기 개념을 적용하면 한국어 문법의 모든 국면에서 작용하는 '동기'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지언어학은 문법의 탐구와 잘 부합하는 틀을 제공함)
- ④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언어학적인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문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습득 양상과 다른 영역과의 상호작용 전반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 ⑤ 현행 학교문법은 개념은 '무의식적 문법', '기술적 문법', '규범적 문법'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해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정말로 무엇이 맞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정답으로 인정되는지를 탐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